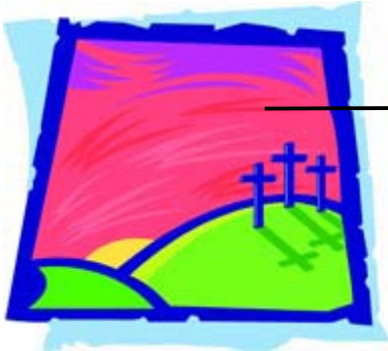


목 차



성경 공부를 들어가며	2
제1과 구약성경	5
제2과 창세기	10
제3과 출애굽기	14
제4과 레위기	18
제5과 민수기	22
제6과 신명기	26
제7과 여호수아기	30
제8과 사사기	35
제9과 룻기	39
제10과 사무엘기	43
제11과 열왕기	47
제12과 역대기	51
제13과 에스라.느헤미야기.에스더기(1)	55
제14과 에스라.느헤미야기.에스더기(2)	59
제15과 욥기와 시편(1)	63
제16과 욥기와 시편(2)	67
제17과 잠언	71
제18과 전도서.솔로몬의 아가	75
제19과 이사야서	79
제20과 예레미야서.예레미야 애가	83
제21과 에스겔서	87
제22과 다니엘서	91
제23과 호세아	95
제24과 요엘.아모스.오바다	99

성경 공부를 들어가며

2014년 6월 기독교 연합신문은 교회학교 공과공부의 위기를 알리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반에 가까운 한국 교회가 공과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역자들도 굳이 공과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¹⁾ 또한 최근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학생들의 기초 학습능력 부진의 문제와 기본적인 인성과 생활 태도 등의 지도 면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들로 여러 부분 학생 교육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고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교회와 학교의 교육적 문제와 혼란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가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 가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무분별한 스마트폰의 사용과 다양하고 자극적인 매체들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오락 게임과 정신을 빼놓는 너무나 가벼운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깊은 사고와 철학을 마주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한 방해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랑침례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 받으며(엡6:4),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나누며 연구하는 자세로 자라나가도록, 또한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본 습성을 잘 키워나가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일 학교 교육이 교사와 학생간의 전인적인 믿음의 교제와 삶을 나누는 소통이며, 교사를 통해 성경을 배워나가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갈 수 있는 작은 밀바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점차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바르게 성장하며,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 젊음의 때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디후2:15)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본 교재는 사랑침례교회 중고등부를 위한 교재로 3년 과정(성경편-1.2, 교리편-1.2, 인물편-1.2)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권에서는 <성경편-1>²⁾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재로 성실하게 중1부터 고3까지 정상적인 공과공부 순서를 거친다면, 3년 과정을 두 번 반복 학습하게 되며,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와 내용을 따라, 좀 더 확장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자유롭게 다루어가며, 공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미국 미들타운 바이블교회³⁾ 주일학교 교재와 침례교 공과교재(요단출판사) 그리고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lrom0&logNo=220065606673>

2) <성경편-1>은 미들타운 바이블교회 <주일학교 9학년 교재-구약성경 13과> 중 11과를 편집했습니다.

3) <http://middletownbiblechurch.org/ssplan.htm>

사랑침례교회 조직신학 강해에서 그 내용들을 발췌한 것이며, 특히 미들타운 바이블교회의 주일학교 교재는 이정원자매님이 번역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내용의 손상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 및 편집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에스라 성경사전> <에스라 성경지도.선도>등과 같은 관련 서적 등을 참고하여 그림 및 보충 설명을 넣었고, 침례교 공과의 경우 일반적인 장로교, 감리교 공과보다 일부분은 내용을 공유하기에 큰 문제가 없기에 필요한 부분을 취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의 빛을 따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119:105)

2014년 12월 24일
장 용 철

<성경편-1.2>-교육과정 소개

순서	주제	분기	월	주	단원	제목
1년차	성경편	1분기	1	1	구약성경	구약성경
				2	구약성경	창세기
				3	구약성경	출애굽기
				4	구약성경	레위기
			2	5	구약성경	민수기
				6	구약성경	신명기
				7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8	구약성경	사사기
			3	9	구약성경	룻기
				10	구약성경	사무엘기
				11	구약성경	열왕기
				12	구약성경	역대기
		2분기	4	13	구약성경	에스라.느헤미야기.에스더(1)
				14	구약성경	에스라.느헤미야기.에스더(2)
				15	구약성경	욥기와 시편(1)
				16	구약성경	욥기와 시편(2)
			5	17	구약성경	잠언
				18	구약성경	전도서.솔로몬의 아가
				19	구약성경	이사야서
				20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예레미야 애가
			6	21	구약성경	에스겔서
				22	구약성경	다니엘서
				23	구약성경	호세아
				24	구약성경	요엘.아모스.오바다
		3분기	7	25	구약성경	요가.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1)
				26	구약성경	요가.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2)
				27	구약성경	학개.스가랴.말라기(1)
				28	구약성경	학개.스가랴.말라기(2)
			8	29	역사	복음의 배경-신구약 중간시대
				30	신약성경	예언의 성취
				31	신약성경	성전의 주인
				32	신약성경	사도행전1
			9	33	신약성경	사도행전2
				34	신약성경	로마서 1
				35	신약성경	로마서 2
				36	신약성경	고린도전.후서
		4분기	10	37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8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후서
				39	신약성경	에베소서
				40	신약성경	골로새서
			11	41	신약성경	빌립보서
				42	신약성경	디모데전후서
				43	신약성경	빌레몬서, 디도서
				44	신약성경	히브리서
			12	45	신약성경	야고보서
				46	신약성경	베드로전후서
				47	신약성경	요한1.2.3.
				48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 하반기 제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1과 구약 성경

성경은 한 권으로 제본된 완전한 도서관입니다. “바이블(BIBLE)”⁴⁾이란 단어는 “책들”이라는 뜻으로 모두 66권의 책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구성

구약성경 (창세기~말라기)	39권
신약성경 (마태복음~계시록)	27권
전체	총 66권

☛ 구약 39권은 모두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39권의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모세의 책들 (율법서)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	시가서	대언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사기, 룯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제1대언서 (좀 더 긴 책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제2대언서 (좀 더 짧은 책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4) 이 말은 원래 책을 뜻하며 특히 다른 책과의 구분을 위해 책 중의 책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성경 기록(Script-xures)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그 뜻은 단순히 ‘기록된 글’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출24:7; 마26:28).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유대인들의 성경이 되었으며 다만 다니엘서와 에스라의 몇 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신약은 전적으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말은 유대 지방과 처음에 복음이 전파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용되던 말이다. 신구약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잣대이며 특별히 신약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교리와 교회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성경의 기록자

여러분! 누가 이 책들을 기록했습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성경의 첫 5권을 썼으며, 나머지 책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성경기록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말라기는 모세가 책을 쓴지 약 천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기록자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 다윗과 아모스는 목동이었고, 여호수아는 군인, 솔로몬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사사기와 룻기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성경교사)이었고, 다니엘은 정부의 중요한 치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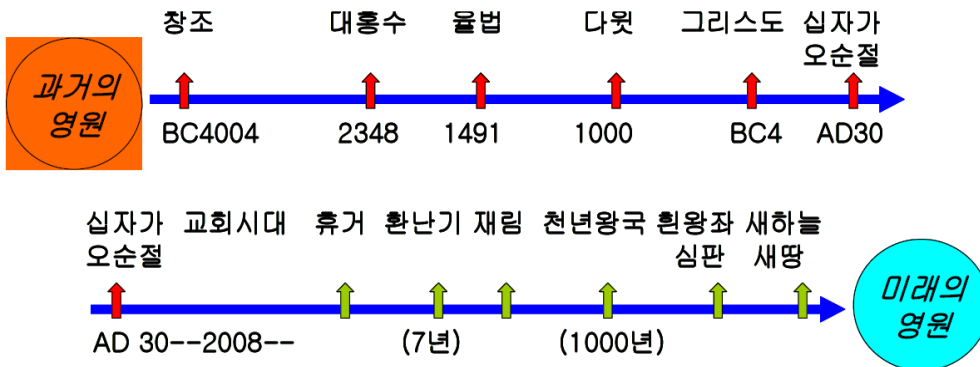
성경이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21절에서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거짓되거나 잘못된 것을 받아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 살펴보기

성경의 대부분은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은 39권이며 신약은 27권입니다. 또한 구약은 929장이며 신약은 260장입니다. 구약은 성경의 약 3/4를 차지하며 신약은 1/4을 차지합니다. 구약이 신약과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 보려면,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 구약(창세기~말라기)을 잡아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신약(마태복음~계시록)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손에 잡히는 페이지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연대

구약에서 우리가 읽는 사건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솔로몬이 B.C. 971년에 왕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BEFORE CHRIST) 971년에 그가 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His Story)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HISTORY)책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처음(창1:1)부터 마지막(계 22:21)까지의 세상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는 실제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HISTORY is really HIS STORY).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역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를 통해 그분이 이루어 내시려는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첫째, 그분의 이야기는 **한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민족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이 민족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은 계속 이 민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창세기 첫 11장은 제외)

둘째, 그분의 이야기는 **구원자**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구원자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27절을 통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눅24:27)

또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눅24:44-45, 요5:39).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창세기- 여자의 씨(3:15)
- 출애굽기-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12장 참조)
- 레위기- 우리의 대제사장(전체)
- 민수기-야곱에서 나온 별(24:17)
- 신명기- 모세와 같은 대언자(18:15)
- 여호수아- 주의 군대의 대장(5:13-15)
- 사사기- 주의 천사(13장)
- 룻기-우리의 친족 구속자(3장)
-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왕의 왕, 주의 주(삼상8:1-9)
-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테르기- 지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전체)
- 욥기-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욥19:25)
- 시편-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시2), 고난 받는 자(시22), 영광의 왕(시24), 통치자(시72)

잠언- 우리의 지혜(14장)
전도서- 기억되지 않은 지혜로운 자(9:14-15)
솔로몬의 아가- 나의 사랑하는 이(2:16)
이사야서- 우리의 고난당하는 희생 헌물(53장)
예레미야서- 주 우리의 의(23:6)
예레미야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우시는 슬픔의 사람(1:12-18)
에스겔서- 하나님의 영광(1:28)
다니엘서- 깎아 낸 돌(2:34), 불타는 용광로와 사자굴 속의 동행자(3:24-25; 6:22)
호세아- 다윗의 위대한 왕(3:5)
요엘- 자신의 백성의 소망(3:16)
아모스- 이스라엘의 구출자(3:12)
오바다- 시온 산 위의 구출자(17절)
요나- 묻히셨다가 일어나신 구원자(마12:40 비교)
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5:2)
나훔-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1:7)
하박국- 우리 믿음의 닻(2:4)
스바냐- 심판과 정결을 위해 한 가운데 거하심(3:5,15)
학개- 주의 현현과 권능(1:13)
스가랴- 매 맞는 목자(13:7)
말라기- 의의 해(4:2)

 **알파벳 'C'로 풀어보는 성경 역사**

- 창조(CREATION)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상에 사람을 두셨지만 사람은 창조주에게 불순종하여 죄에 빠졌습니다.
- 지도자 노아(CAPTAIN NOAH) 창세기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홍수를 보내심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 혼란(CONFUSION) 창세기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로 혼란케 함으로써 죄인들을 바벨탑에서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흩어지고 퍼지면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형성하였습니다.
- 아브라함을 부르심(CALL OF ABRAHAM)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족과 본토를 떠나서 약속된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짐을 짐(CARRYING BURDENS) 출애굽기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 나라에서 약 400년간 노예가 되었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장막(CAMP) 출애굽기~신명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머물면서 장막을 쳤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운 때가 이 시기였습니다.

-정복(CONQUEST) 여호수아기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부패(CORRUPTION) 사사기

일단 그들이 약속된 땅에서 정착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자신들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시기 시대였습니다.

-왕관(CROWN)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사시기 시대 다음으로 왕정시대가 온 이후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 왕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 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또한 북 왕국과 남 왕국은 각각 자신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포로생활(CAPTIVITY) 열왕기하, 역대기하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리아를 보냄으로써 북 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여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빌론 사람들을 보내 남 왕국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정복되었고 백성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건축(CONSTRUCTION)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 사람들의 일부(약 5만 명)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바빌론사람들이 파괴한 하나님의 성전(에스라 참조)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세웠습니다(느헤미야기 참조). 이런 사건 이후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났고 대략 400년 지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구약성경 39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각 책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 이 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 책에 핵심 절이 있습니까?
- 이 책에 대해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 이 책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이 책의 메시지는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소서!

제2과 창세기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책: 창세기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5권은 모두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5권의 책을 “모세의 책들”, “율법”, “모세오경”(오경의 penta는 5을 의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46절과 누가복음 24장27,44절에서 모세가 쓴 책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크리스천 믿음의 기초이며,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의 그리스도를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오늘날 왜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과 인종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개요

-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315년(어서의 연대기)
-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롬15:4; 고전10:11)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처음에’(In The Beginning)라고 불렀다. Genesis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게네시스’에서 나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기원’을 뜻한다. 따라서 창세기는 사람과 온 우주의 시작을 보여 주는 책이다.
- 주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써서 여러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 목적: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3:15, 21; 22:8; 마20:28; 요1:29; 갈4:4-5)
- 내용: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 주는 책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여자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발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족장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 등을 담고 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 죄가 은밀히 들어와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다. 창세기는 사람이 죽는 이유와 만물이 쇠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의 말씀들이 신약성경의 17권의 책 속에서 60여 차례 인용되고 있다.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1:20-28) 사망으로 끝난다(50:26). 창세기는 50장, 1,533절, 38,267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창조), 12장(아브라함을 부르심)

-핵심 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낸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으며 유일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처음(시작), 핵심 구: “처음에”(1:1)

창세기-시작에 관한 책

창세기(Genesis)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으며 “태어나다”, “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기원, 존재가 되는 것, 어떤 것의 시작을 말합니다.⁵⁾

어떻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출발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기원하였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1절에 나오는 첫 절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창1-2)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창3:15,21)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창6-8)

그분은 민족들의 하나님이십니다!(창9-11)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창12-50)

우리는 또한 창세기에서 그분이 불렀던 이름들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배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창14:18).

그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 하나님이십니다(창17:1).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창18:14)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 하나님이십니다(창21:33 참조).

이렇듯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시작에 관한 창세기 살펴보기

1. 우주의 시작 (하늘들과 땅). A. 창1:1

2. 남자의 시작 B. 창2:7

3. 여자의 시작 C. 창2:17; 3:19; 5:5

5) 창세기(GENESIS)는 또한 창세기 전체에서 보게 되는 “세대들”과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창2:4; 5:1; 10:1; 11:10; 11:27; 25:12; 등 참조).

4. 결혼의 시작 D. 창2:18-23
5. 자녀의 시작 E. 창2:23-24
6. 죄의 시작 F. 창3:6
7. 사망의 시작 G. 창3:21; 4:4; 8:20
8. 동물 희생헌물의 시작 H. 창4:1-2
9. 살인의 시작 I. 창4:17
10. 도시들의 시작 J. 창10:5; 20,31,32
11. 민족들의 시작 K. 창11:1-9
12. 언어들의 시작 L. 창12:1-3
13.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의 시작 M. 창4:8



처음과 마지막

좋은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책에서 처음 10페이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야기가 모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성경은 불완전하고 시작이 없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다른 모든 책들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은 계시록에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계시록은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날지 말해줍니다. 창세기는 다른 책들이 서있는 기초이며, 계시록은 건물을 마감하는 지붕입니다. 다음의 표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계시록
1. 낙원	잃어버림	회복함
2. 생명나무	접근 금지(3:22-24)	먹음(22:2)
3. 인간의 반역	시작(3-4장)	종결
4. 살인 등의 죄악	시작	종결(21:27)
5. 죽음	시작(4:8)	종결(21;4)
6. 저주	시작(3:15-18)	종결(22:3)
7. 마귀	인간의 유혹자(3:1-18)	최후를 맞음(20:10)
8. 하나님의 말씀	변개(3:1-5)	변개의 저주(22:19)



창세기 심화

창세기만이 기원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창세기만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제 시작되었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장으로 가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태양과 지구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태양과 달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식물과 동물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바다 생물과 땅의 생물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파충류와 조류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태양과 식물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닭과 계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 땅에서의 가족들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땅에서의 가족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담의 가족과 그들이 어떻게 악하게 되었는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큰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노아의 가족에 대해 배웁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고, 이 세 아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나왔습니다(창9:19; 10:32). 마지막으로 12장과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창12:2).

■ 약속된 구원자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3장15절에 나옵니다. 이 절은 구원자(메시아)가 여자의 씨에서 나오며 사탄인 뱀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구원자의 계보 즉 그리스도(메시아)의 조상들이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33-3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조상들은 셋,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삶에 대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신의 책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는 원숭이와 같은 동물에서 진화되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합니다.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 왜 자신들이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생명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보게 해 줍니다. 창세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기원에 대해 어둠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의 각 주제들을 생각해보고 창세기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돕는지 말해보세요.

나의 시작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나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나의 육체적 생명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나를 마음속에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젠가 태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모두 있었습니다! 나는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태어났습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까? (요3:1-7)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까? (고후5:17)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엡2:8-9)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까? (엡2:10)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던 때를 돌아보고 “이것은 나의 영적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인해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3과 출애굽기

탈출이라 하는 모세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The Second Book of Moses Called EXODUS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에 대한 책으로 모세의 두 번째 책입니다. 탈출(Exodus)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공공건물에 있을 때 “출구(EXIT)”라고 쓰인 표지를 볼 것입니다. 이 표지판들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라는 단어는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어인 Exodus는 히브리어 11장22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그리스어 Exodus로부터 번역된 영어 표현)에 대해 말하고” 요셉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들은 노예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노예상태에서 건져내서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셨습니다.



출애굽기 개요

-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율법, 기간: 약 216년(어서)
-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탈출과 시내 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 공식 출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성도(롬15:4; 고전10:11)
- 이름: Exodus는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엑소더스’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탈출’을 뜻한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보여 주며 영적으로는 사람이 죄의 왕국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여 준다.
- 주제: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 및 하나님께 대한 관계(6:6-8; 19:4-8; 24:1-7; 25:8)
- 목적: 사람의 구속의 당위성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엡2:1-10)

-내용: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요셉과 모세 사이의 시기는 1장 6-7절로 간략히 기술되고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절박한 상황을 기술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한때 파라오와 요셉의 총애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려 하지만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구속하기 위해 활동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능에 의한 이집트 탈출의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속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 되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예비하신 백성으로 삼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의 고난, 하나님의 긍휼과 그것을 통한 해방, 광야에서의 성막 예배 규례 등이 중요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마귀의 왕국인 영적 이집트를 떠나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며 승리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과 더불어 이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본다. 출애굽

기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무 그리고 은혜 등을 가리키는 예표가 많이 있다. 출애굽기는 40장, 1,213절, 32,69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2장(유월절), 핵심 절: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 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12:23)

-핵심 단어: 구속(대속). 출애굽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함을 보여 줌과 동시에 구속받은 자녀들도 계속해서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핵심 구: “너희를 넘어가리라.”(12:13)

-출애굽기의 그리스도: 1. 하나님(3:14, 요8:58 참조), 2.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12:5, 고전5:7 참조), 3. 만나(16:14-22, 요6:35 참조), 4. 반석(17:1-7, 고전10:4 참조), 영적 교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나오라.”



다섯 개의 큰 사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다섯 개의 큰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민족이 번성하다.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으로 이집트에 왔을 때 혼(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출1:5) 이들은 그렇게 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창 22:17).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출1:7)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출1:9-10 참조). 이집트 왕은 이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출1:12,16-17)

2)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다.

마침내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 왕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개구리, 물이 피로 변함, 이, 파리, 종기, 우박 등).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에 대해 출애굽기 7-1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3)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다.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가정에서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 파라오는 그의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이집트 탈출기를 출애굽기 12-15장에서 읽게 됩니다.

4) 율법이 주어지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광야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23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에 대해 읽게 됩니다.

5) 성막이 세워지다.

출애굽기 25장과 26장은 모두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셔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큰 장막으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 장막과 이 장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을 가지고 있었고 이 특별한 장막은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지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성막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기억하기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당신은 십계명 10개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까? 같은 장에서 또한 우리는 출애굽기의 핵심 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의 핵심 사상은 구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와 노예상태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15:13 참조). 그러나 이 헛수가 지난 후에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창15:14).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시고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데려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구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출하셨습니까? 당신은 노예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요8:34)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것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부터 당신을 데려 나오셨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구원해 주셨으며,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6장18절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요한복음 5장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13-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시편 40편2절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길을 굳게 세우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9-10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위대한 구출자께서 당신을 구출하셨습니까?/ 위대한 구원자께서 당신을 구원하였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날에"(출6:27-28)

만일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면 왜 이 구절에서 모세는 자기에 대해 제 3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며 삼위일체의 세 분이 서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예를 들어 시편 2편) 출6:27-28 역시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였음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요3:16에서 그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책이며 그분께서 이 책의 저자시라면 (딤후3:16)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의 경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뒷부분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기록되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느보 산에 올라가기 전에(신24:1) 앞날을 예언하며 그 부분을 기록했을 수도 있으며 여호수아가 수24:26에 기록된 것처럼 그 부분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나무 밑에 세우며"(수24:26).

이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대화 부분 특별히 모세의 죽음 이후의 부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에 영감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심지어 모세를 써서 그가 죽기 전에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The Book of Bible Problem by G. D. Bouw, Ph.D.).

제4과 레위기

레위 사람들에 관한 법이라 하는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
The Third Book of Moses Called LEVITICUS

레위기 개요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율법, 수신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주께서 부르셨다'(The LORD called)라고 불렀다. Leviticus는 레위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레위티콘'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을 뜻한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주로 레위의 제사장 체계, 제사장들의 섬김, 희생 율법 등을 다루기 때문이다.

-주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 주는 것

-목적: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고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 주는 것(엡1:7; 히10:19-22)

-내용: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는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관계와 비슷하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기록으로서 구속받은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초를 놓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의 기초 위에 이 일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쌓는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산에서 말씀하시지만 레위기에서는 자신이 친히 거하며 자신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막에서 말씀하신다. 레위기의 내용은 전적으로 율법적이며 이 안에는 시민법, 의식법, 윤리법, 종교법, 정결례 등에 관한 법규가 들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은 종교법과 의식법이다. 레위기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희생과 명절과 의식과 예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성령님이 영감을 주신 레위기 주석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두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예표와 실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영적인 복을 기대할 수 있다. 레위기는 27장, 859절, 24,546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6장(속죄일), 핵심 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19:2),

-핵심 단어: 거룩함(152회), 핵심 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11:44)

-레위기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히4:14), 영적 교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레위기 살펴보기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소개하는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Leviticus)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첫 4글자(영어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레위(LEVI) 자손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 아들중 하나입니다 (출1:1-2 참조). 레위 자손(후손)들은 “레위사람”으로 불립니다(눅10:32). 모세는 레위의 후손이었으며(출2:1-3,10), 모세의 형인 아론도 또한 레위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여 그에게 특별한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출28:1). 또한 아론의 모든 아들들(모든 남자 후손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레위 사람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기는 “아론의 자손들”(제사장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 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레위기는 제사장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핵심단어

-거룩함: 레위기에서 핵심 단어는 이 책에서 80번 이상이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1장에서 “거룩함”(HOLY)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니까?

-죄와 부정: 우리는 또한 “죄”와 “부정”이라는 단어도 이 책에서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며 죄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결하고 더러운 인간이 흠도 없고 순전하고 정결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u>인간</u>	장벽	<u>하나님</u>
거룩하지 않은		거룩한
순결하지 않은		순결한
죄 많은		죄가 없는
부정한		정결한
더러운		흠이 없는

---->이사야 59장2절-당신의 부정함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 헌물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레위기는 동물 헌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희생 헌물들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하실 것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첫 몇 장에서 이러한 희생 헌물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희생헌물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히9:22).

2) 죄 없는 속죄 헌물이 죽어야 합니다.

죄인이 죽는 대신에 죄 없는 동물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헌물로 죽으셨습니다(고전15:3; 롬5:8).

3) 죄에 대해 징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롬5:6,8).

희생헌물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희생헌물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죄 없으신 속죄물의 희생헌물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벧전3:18)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죄 많고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며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셨습니까?(레18:3)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가나안 땅-레18:3 참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셨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까? (롬12:2; 엡4:17 참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모든 희생 헌물에 대해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헌물(요일2:2)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기 위해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제사장들(아론의 아들들)에 대해 배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히8:1)이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기에서 사람들은 노예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 왔습니다. 그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길은 구원자의 죽음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구원자의 생명에 의해 구별되어진 삶이어야 합니다.⁶⁾

이스라엘의 헌물 제도

종류	성경 구절	내용	의미
번제 헌물 (태우는 헌물)	레1; 레6:8-13	수소, 숫양, 숫염소, 수컷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제물은 모두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하고 바치는 사람의 재정 능력에 따라 헌물이 정해짐)	자원해서 드림 죄로 인한 화해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복종을 의미함
음식 헌물 (소제 헌물)	레2; 레6:14-23	고운 밀가루, 빵이나 과자(기름과 소금으로 만든 음식으로서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하고 유향을 더하기도 함)	자원해서 드림 첫 열매로 인한 감사
화평 헌물 (화목제) 감사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포함	레3; 레7:11-36; 레22:17-30; 레27	흠 없는 짐승(양수에 상관없고 바치는 사람의 재정 능력에 따라 헌물이 정해짐)	자원해서 드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함 (1) 특별한 복에 대한 감사 (2) 서원에 대한 표현 (3) 일 년에 세 차례 모이는 명절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
죄 헌물 (속죄제)	레4:1-5:13; 레6:24-30; 레12:6-8	흠 없는 짐승(수컷이나 암컷) 제사장, 회중: 어린 수소 치리자: 숫염소 새끼 일반인: 암 염소 새끼나 어린 양; 가난한 사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매우 가난한 사람: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	필수적으로 드림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자가 바치거나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바침
범법 헌물 (속건제)	레5:14-6:7; 레7:1-6; 레14:12-18	흠 없는 숫양	필수적으로 드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한 사람이 바침 나병 환자들도 정결하게 되기 위해 바침
거제 헌물 (들어 올리는 헌물)	출29:27-28; 레7:12-14, 32; 민6:20; 민15:19-21; 겔48:8-12	화평 헌물 중 하나 오른쪽 어깨	원래 이것은 주께 드린 것의 일부를 제사장이 들어 올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로 부터 왔음을 보여 주는 데서 유래됨
요제 헌물 (흔드는 헌물)	출29:24, 26 레7:30; 레8:27, 29 민6:20; 8:11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숫양의 가슴	원래 이것은 희생물의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일단 주께 바친 헌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데서 유래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음료 헌물(전제)은 날마다 혹은 안식일이나 월삭, 명절 등에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함께 누구나 드릴 수 있었다(민15:1-10; 28:14; 29:6).

6)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39절을 읽어 보세요. 이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레위기 19장 몇 절에 나오니까?

제5과 민수기

백성의 수라 하는 모세의 네 번째 책: 민수기
The Fourth Book of Moses Called NUMBERS

민수기 개요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9년(어서), 수신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두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이름: Numbers는 수(數)를 뜻하는 그리스어 책명 '아리스모이'에서 나와 라틴어 '누메리'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많은 종류의 수를 보여 주는 책'을 뜻한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여러 종류의 수 - 예를 들어 이스라엘 지파의 통계(1:20-46), 레위의 몇몇 가족의 수(3:14-51), 이스라엘 족장의 통계(26:5-51), 행사 때에 바친 희생 헌물의 수(28:1-29:23), 미디안 사람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의 수(31:32, 52) 등 - 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의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에 근거를 둔 이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책은 히브리 성경의 이름인 '광야에서'가 의미하듯이 인구 조사가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간 것이 핵심이다.

-주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목적: 사람이 믿음을 통해 시험의 장소에서 복의 장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민수기는 이전의 모세의 세 책과 더불어 신자의 경험을 완벽한 그림으로 보여 준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을, 출애굽기는 구속을, 레위기는 경배와 교제를, 그리고 민수기는 점검의 여정을 보여 준다.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의 마지막 19일부터(1:1; 10:11) 이집트 탈출 뒤 40년이 되는 해에 요르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22:1; 26:3; 33-36:13). 민수기에는 몇 장에 걸쳐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지만(1-4장, 26장) 책의 대부분은 율법과 규례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인구 조사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조사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며 시내 산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것은 약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요르단 강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의 인구 조사가 민수기를 양분한다. 1-21장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광야 시대를 다루고 있고 26-36장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몇 달 전까지의 역사를 말해 준다. 이 둘을 나누는 거짓 대언자 발람기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닌다.

7) 발람은 유프라테스에 있던 브돌의 점쟁이(민22:5)로 셈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주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민22:18).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있던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곤경에 몰아넣은 악한 인물이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기 뜻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

-핵심 장: 14장(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신), 핵심 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니라.”(33:1), 핵심 단어: 여정, 핵심 구: “여정이 이러하니라.”(33:1)

-민수기의 그리스도: 1. 반석(20:11; 고전10:4), 2. 별 - 통치자(24:17; 계22:16), 3. 흠 - 치리자(24:17; 딤후6:14-15),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곳에서 있으라.”



민수기 살펴보기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이 세상의 광야에서의 지도책. 믿는 자는 돌고 돌다가 아무데도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로부터 교훈을 배울 때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 번 “계수” 또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민수기 1장1절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 배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약 40년 후,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20살 넘는 남자들)만 계수 되었는데(민1:3), 이 사람들은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그곳의 여자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대략 계수해보면 약 2백만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민수기 26장에서는 백성들이 얼마나 계수되었습니까?(민26:51 참조)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약 2백만 명도 역시).

민수기 핵심 절

민수기의 핵심 사상은 불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민수기는 광야에서 38년(믿지 않는 마지막 사람이 죽기까지 경과된 시간) 동안 방황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29-30절을 보세요. 핵심 절은 불신앙의 사상과 함께 하며 이것은 민수기 14장11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이 백성들에 대해 히브리서 3장19절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땅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히4:1-2 참조)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7절에서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

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의로운 자들의 행위를 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민31:8; 수13:22).

나눔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불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민13:2)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적들을 물리칠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야기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서 키가 큰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골리앗 같은 크기의 거인들입니다(민13:31-33 참조). 정탐꾼 중에서 오직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거인들보다 크시며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 거인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체 회중들은(약 2백만 명)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열 명의 정탐꾼처럼 걱정을 해야 하는가?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열 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을 따랐습니까? (민14:1-10 참조)

불신앙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극심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보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민14:23).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기까지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민14:29).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38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만이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민14:30)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순하게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작은 문제들마다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보다 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큰 거인들과 같습니까? 수천의 사람들 중에서 단지 두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약속들을 붙잡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순종(obey)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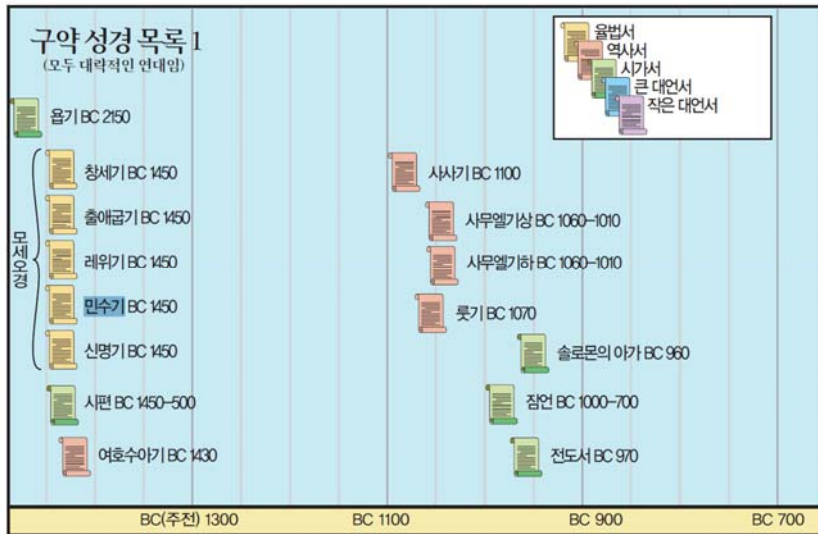
성경에서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이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나으며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신다(삼상15:22-23).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의 행위이며 그 이후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순종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히브리서 11장).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분의 말씀에 부응하여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순종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디로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역사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지 잘 보여 주고(로마서 9-11장)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단12:1; 마24:21).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본을 남겨 주셨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였고 이로써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다(빌2:5-11).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요구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위치와 권위에서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젊은 성도는 장로에게 순종하여야 한다(엡 5:22-33; 6:1-9; 벰전5:5-6).

구약성경 목록1



제6과 신명기

반복의 율법이라 하는 모세의 다섯 번째 책: 신명기 The Fifth Book of Moses Called DEUTERONOMY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38년 생활이 지난 후, 구 세대 마지막 불신앙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구세대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들 외에 살아 있는 모든 남자들은 이들보다 더 젊었는데 그들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을 때 20살 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널 때 10대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때 어린아이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가 시작될 때는 홍해를 건너 후 약 4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새 세대는 성장했고 구세대는 죽었습니다.

신명기 개요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율법, 기간: 약 40년,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말씀들'(The Words)이라고 불렀다. Deuteronomy는 신명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듀테로노미온'에서 나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두 번째 율법'을 뜻한다. 이것은 결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율법을 받았음을 뜻하지 않고 다만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여기서 다시 한 번 검토되고 거기에 대한 주석이 주어짐을 뜻한다. 한글 성경의 '신명기'는 '명령들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라는 뜻으로 신명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회고, 새 땅에서의 이스라엘을 안내하기 위한 교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

-목적: 신자의 믿음의 시련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며 동시에 현 세대에서의 삶의 원리와 미래의 소망을 알려 주는 것

-내용: 신명기는 시내 산에서 처음에 주어진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새 세대의 출현과 이들이 한 번도 밟아 보지 못한 가나안이라는 새 땅의 정복과 유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면서 이들이 지켜야 할 새 의무의 필요 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여기에서 모세는 새 세대에게 과거에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 번 복습시키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 준다. 잠시 후에 그들을 떠날 모세는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진지하게 갈구하면서 잠시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이 율법이야말로 그들이 지켜야 할 순종의 잣대요 또 행복의 열쇠였다. 그래서 모세

는 구세대의 불순종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미리 경고를 주며 특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준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꾀계를 격퇴시키셨고(마4:1-11) 또 율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셨다(마22:37). 신약성경의 27권 책 중에서 17권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다. 신명기는 34장, 958절, 28,461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9장(팔레스타인 언약), 핵심 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6:5), 핵심 단어: 1. 순종, 2. 기억, 핵심 구: “지켜 행하라.”(12:1) 신명기의 그리스도: 대언자(18:15-19; 행3:22-23; 7:37), 영적 교훈: “멈추어 서서 기억하라.”



신명기 살펴보기

신명기라는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새 세대에게 두 번째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아주 늙었던 모세는 이 새 세대에게 율법을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구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일 있었다라도 십대이거나 너무 어려서 기억할 수 없는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또한 모세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말들을 발견합니다. 이 책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죽음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들을 읽게 됩니다.



가장 큰 명령

마태복음 22장 36-3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첫째가 가장 큰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다음의 절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절들은 모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9절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신명기 11장1절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위의 말씀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언급한 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은 그의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 드립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장 15,21,23절에서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핵심사상 중 하나입니다. 순종! 우리는 단순히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 드립시다. 신명기는 다음과 같은 율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할 것이라” “너는 ~하지 말 것이라.”

십계명은 신명기에서 반복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를 생각할 때 당신은 순종이란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요일5:3)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범법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범법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딤후1:15).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요일3:23, 상반절)

당신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첫째 명령을 순종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다른 명령들을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복과 저주

신명기에서 핵심 구절들은 신명기 11장 26-28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과 저주 사이에서 택해야 합니다(26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복이 그들의 것이 됩니까? (27절) 그들이 무엇을 해야 저주가 그들의 것이 됩니까?(28절)

동일한 것이 오늘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믿고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 행복해 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믿는 자의 혼에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합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생각해 보기

예수님께서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분은 세 번이나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마4:4,7,10 참조).

사람이 빵 만으로 살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신명기 8장 몇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명기 6장 몇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신명기 6장 몇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다섯 책들의 메시지

성경의 첫 다섯 책들에 나오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1. 창세기-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고후 5:17)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 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가집니다!
2. 출애굽기-하나님께서서는 나를 끔찍한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요8:32-36)
3. 레위기-나는 그리스도의 희생 헌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벧전 3:18).
4. 민수기-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히 3,4장)
5. 신명기-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요14:15,21,23)

복(Blessing) 알아보기

복을 빌거나 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자신의 복을 효과 있게 만드는 효력을 부여하신다. 그분의 복에는 잠정적인 것,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등이 있으며 이 복에는 항상 그분의 선하심이 함께한다(민6:23-27).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경우에는 신1:1-29; 33:1과 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대언의 말씀이 아닌 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사람의 축복은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렇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뿐이다. 한편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대개 ‘찬송하다’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시103:1). 의식주를 주시는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시103-104) 또 주님의 만찬에 드러난 그분의 특별한 긍휼로 인해서도 감사를 드린다(고전10:16).

제7과 여호수아기

여호수아기-땅에 들어가서 소유함
The Book of JOSHUA



여호수아기 개요

-기록자: 여호수아, 기록 시기: 주전 143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6년

-수신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름: 영어 성경 제목 'Joshua'는 히브리말로 '여호와와 함께 구원이다'를 뜻한다.

-주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지파 별로 배분하는 것

-목적: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자신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여호수아기는 모세오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며 족장들과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두 지파를 약속의 땅에 정착시킴으로 생겨난 신정 국가를 보여 준다(11:23; 21:43-45).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책임을 맡았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국가가 정착되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서 지파 별로 땅을 배분하는 일은 친히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셔서 오래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 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된다. 또한 여호수아기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잘 드러난다. 이 책에서 입증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의 히브리말 즉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함께 구원이다'를 뜻하며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투쟁과 승리와 복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보여 준다(엡1:3; 2:6; 6:12). 그러므로 여호수아기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에베소서와 신약 성도들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차원에서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원수의 권능을 무찌르고 승리의 삶을 사는 현장의 예표로 이해될 수 있다. 여호수아기는 24장, 658절, 18,85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심)

-핵심 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21:45), 핵심 단어: 소유하라

-핵심 구: “하나님의 신실하심”(1:3; 21:45)

-여호수아기의 그리스도: 구원의 대장(5:14; 히2:10), 영적 교훈: “네 소유물을 소유하라.”



여호수아기 살펴보기

많은 구약의 책들은 지도적인 인물의 이름을 따라 불립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을 가진 책(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나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신31:7).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모세는 성경의 첫 다섯 책을 썼으며 여호수아는 성경의 여섯째 책-여호수아기를 썼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구출자이며 구원자이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셨고 그 민족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여호수아”(히브리어)는 “예수”(그리스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8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혹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마1:21)



백성을 데리고 나옴/ 데리고 들어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나온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신명기 6장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길 원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데려 나오신 것에 대해 배우며 여호수아에서는 그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약 40년을 사막에서 방황하는데 보냈습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땅에 들어가거나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로부터 구원을 받아 ~로 구원됨

이스라엘 민족은 속박에서 구원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약속의 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떤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한 어떤 것들에게로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디로 구원하셨습니까?

다음은 절들을 살펴보고 믿는 자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 어디로 구원되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9절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

어디로 구원되었습니까? -----

-골로새서 1장13절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

어디로 구원되었습니까? -----

-디도서 2장14절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

어디로 구원되었습니까? -----

-요한복음 5장24절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

어디로 구원되었습니까? -----

☛당신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 어디로 구원된 사람입니까?



당신의 소유물 소유하기

여호수아기의 핵심 절 중 하나는 여호수아기 1장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차지해야 함)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발을 그 땅 위에 놓아야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운동경기가 시작되기 5주 전에 야구장에 갈 표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경기가 있는 날 야구장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예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야구장에 가지 않기로 했다면 그 자리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리는 당신 것이었으나 당신은 결코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졌어야 했던 것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약속된 땅에 예비 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자신들을 위해 그것을 소유하였습니까? (수21:43)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게 하셨습니까? (수21:44)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수21:45)

평생을 올드 웨스트(Old West)산에서 은을 찾는데 보낸 한 늙은 광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지내러 온 사람들은 자신의 오두막집 아래 묻어달라는 쪽지를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가득담은 삽을 뒤집었을 때, 번쩍이는 회색 빛 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은 광맥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 광부는 평생 동안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부를 결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소유물을 소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것이었지만,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을 결코 이용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주신 것을 자신의 백성들이 이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땅을 주셨고 그들이 그 땅을 누리고 완전히 이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지휘아래 많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들의 일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적들이 이스라엘이 소유했어야 했던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해 버렸습니다(수17:12-13 참조). 그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었고 가져야 했던 모든 것을 놓쳐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믿는 자들이 생활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1) 요한복음 14장27절; 16장33절

하나님께서서는 문제가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에게 _____ 주셨습니다.

2) 요한복음 15장11절

하나님께서서는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_____) 주셨습니다.

3) 요한복음 8장12절

하나님께서서는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_____ 주셨습니다.

4) 요한복음 10장28절

하나님께서서는 사망의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_____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소유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이 네 가지 것들을 택하여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기 1장3절에 나오는 핵심 절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들이 이 약속과 함께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위에 발을 놓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또한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고후5:7).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걸음씩 그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한걸음씩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는 자들을 위한 승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이니라”(요일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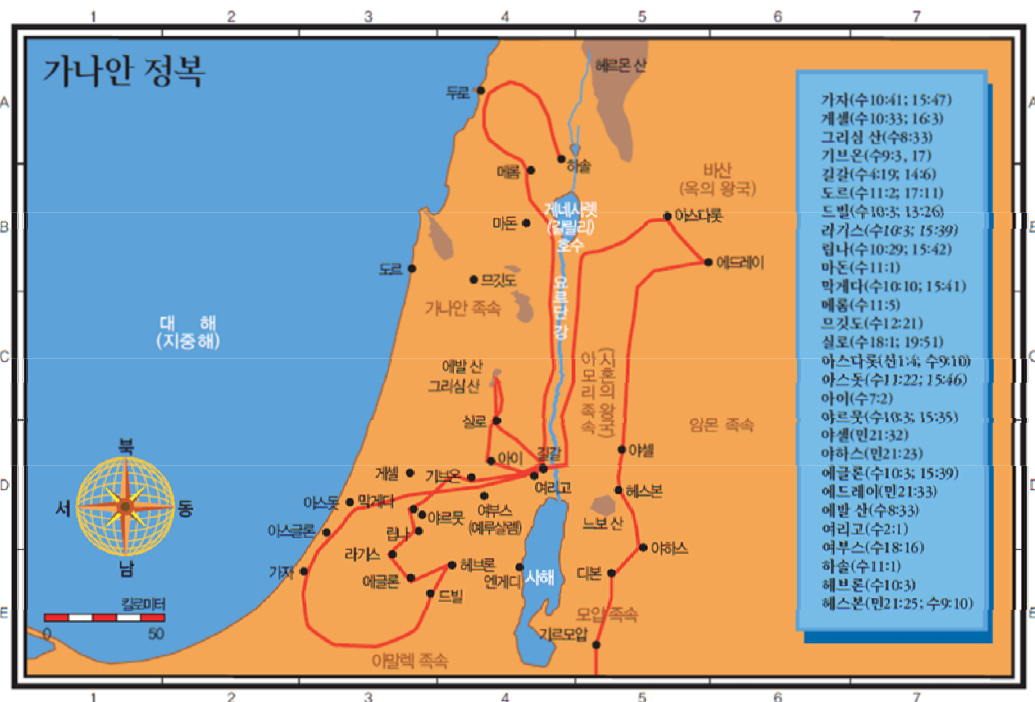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한걸음씩 취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기와 에베소서

여호수아기와 비슷한 책이 신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여호수아기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수1:6,9,18) 에베소서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엡6:10)

여호수아기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군사들에 대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복들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엡1:3)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깨닫지는 못합니다. 아주 소수만이 이러한 부를 소유하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소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된 소유물은 그것들에 대한 나의 갈망, 그 약속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 필요한 갈등과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제8과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 시대라고 불리는 역사의 시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께 죄를 지었던 때가 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고통과 혼란과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 시대라고 불리는 역사의 시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께 죄를 지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사들은 누구입니까?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출하여 구원시키기 위해 세우신 여러 남자들(기드온과 삼손과 같은)과 한명의 여자(드보라)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은 없었으며 이 사사들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개요

-기록자: 사무엘(탈무드), 기록 시기: 주전 110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05년(어서)

-수신자: 하나님이 구출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름: 영어로 'Judges'는 사사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크리타이'에서 나온 말로서 '재판관들'을 뜻한다. 우리말 사사기는 고대 중국의 재판관을 가리키는 사사(士師)에서 유래되었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 사이에 이교도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 혹은 구원자를 뜻하는 '쇼페팀'에서 유래되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은 영어나 우리말 재판관이 나타내는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고대 국가에서 이 말은 문관(文官)이나 국가의 수뇌를 묘사할 때 사용되곤 하였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재판관이 나오며 아비멜렉은 스스로 권력을 빼앗아 재판관 노릇을 한 사람이다.

-주제: 하나님께서 추방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추방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허리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판관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목적: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 주며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교제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것

-내용: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의 죽음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공한다. 사사기에는 재판관들의 생애와 활동과 직무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정 정치를 통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였다. (1) 이스라엘이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받아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2) 이스라엘의 권리와 자유를 유지시켜야 할 때; (3)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여 적군을 치게 할 때; (4) 공의를 수행할 때. 재판관들은 왕들과는 달랐으며 그래서 그들의 직무는 지속되거나 다음 세대로 이양되지 않았다. 이 책은 타협과 더불어 시작되며 무정부 상태로 끝을 맺는다.

-핵심 장: 2장(이스라엘의 배도의 시작), 핵심 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21:25), 핵심 단어: 건져 내다 혹은 구출하다(28회), --핵심 구: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1:27; 29; 30; 31)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원수들을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분적인 승리가 임한 것을 보여 준다.
-사사기의 그리스도: 1. 우리의 구출자(3:9), 영적 교훈: “우리의 경계를 주의해서 살펴보라.”



사사(재판관-judge)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사울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도자. 그들은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던 사람들 즉 지금의 판사들과는 매우 달랐다. 재판관의 영예는 평생 동안 지속되었지만 대대로 지위가 넘겨지지는 않았으며 어떤 때에는 재판관 없이 무정부 상태로 나라가 유지되기도 하고 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히브리 사람들이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던 기간도 있었다. 보통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셨지만 어떤 때에는 백성이 자기들을 압제에서 구해 줄 가장 합당한 인물을 고르기도 하였다. 또한 압제가 이스라엘 전체에 행해지지 않은 경우 한 지방에서 선택된 재판관은 전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 없었다. 그러므로 에훗, 입다, 엘론, 야일은 요르단 동쪽에서, 바락과 돌라는 북쪽에서, 압돈은 중앙에서 그리고 삼손과 입산은 남쪽에서 재판관이 되어 그들을 다스렸다. 재판관의 권위는 왕의 권위만큼은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권위 있게 모든 일을 다스렸다. 그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백성에게 짐을 지우지 못하였고 단지 율법을 지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우상숭배를 타파하였다. 그들은 영예나 보수를 받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나라를 구했다.

재판관 시절에 가나안 족속을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살아 남은 이교도들은 우상숭배와 악한 일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혔다. 레위 사람 미가의 사건과 베냐민 족속을 거의 진멸시킬 뻔했던 기브아 사건 등(삿17-21)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악한 일을 행하였음을 잘 보여 준다.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와 모압과 가나안, 암몬,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파들의 일부에게 또는 전체 지파에게 고통을 주게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분께서는 재판관을 일으켜서 그들을 재난에서 구조하셨다. 성경에는 열다섯 명의 재판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후 20년이 되었을 때에 옷니엘이 나오고 그 뒤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여러 재판관이 나타났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재판관을 표현하기 위해 고대 중국에서 재판관과 비슷한 일을 하던 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연속적인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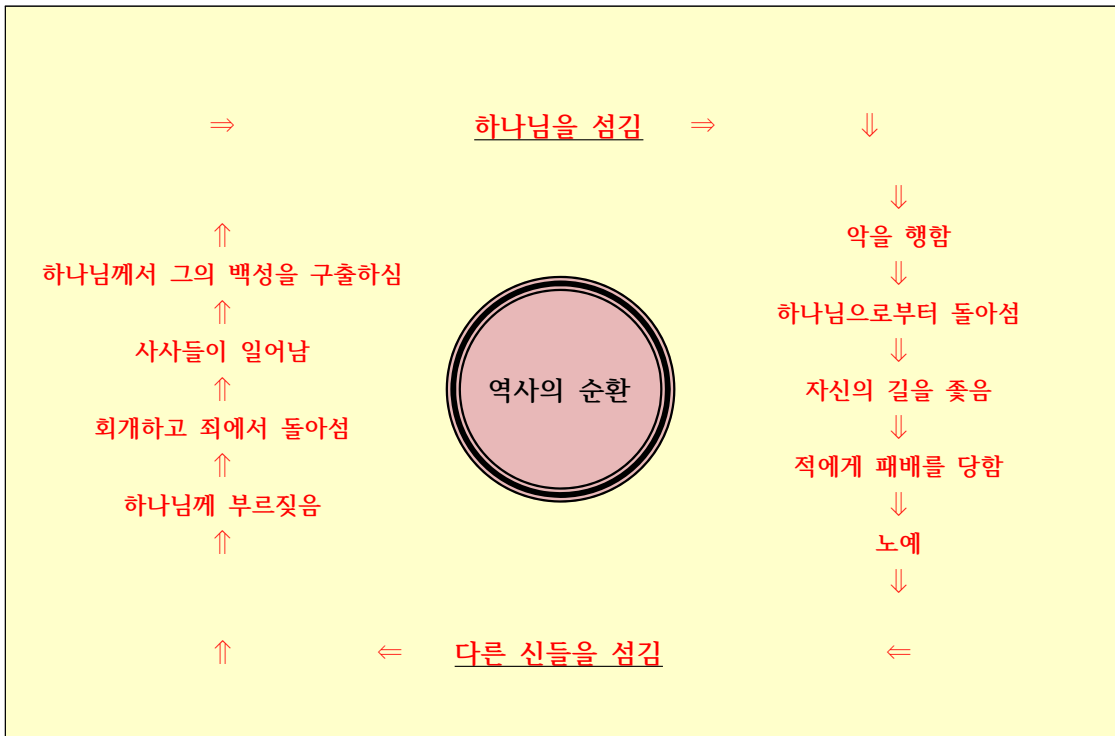
사사기에서 우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반복을 이루는 하나의 순환에 대해 배웁니다(네 개의 “R”자를 생각).

-반역(REBELLION)-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사악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징벌(RETRIBUTION)-하나님께서서는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적이 그들을 지배하여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REPENTANCE)-마침내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울며 나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구원(RELIEF)-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와 달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적으로부터 이 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고통에 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위의 반복적 순환주기(반역-징벌-회개-구원)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 주기를 사사기 2장11-19절에서 읽을 수 있으며, 사사기에서 이 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순환 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니면 죄를 섬기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당신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살펴보기

사사기의 핵심 절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아마도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책에서 가장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찾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신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어느 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도 분명히 원치 않아. 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원치 않아. 난 나의 왕이 되고 싶어!”

유감스럽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 스스로가 왕들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야!”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까?

누가 옳은 것을 결정했습니까?

누가 그들이 해야 할 것을 결정했습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왕은 누가 될 것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려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눈에 옳은 것을 하려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왕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멸망과 재앙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모두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한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인간이 실패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호수아기와 사사기 비교

여호수아기	사사기
승리	패배
자유	속박
믿음	불신앙
하나님께 신실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옴
기쁨	슬픔
강함	약함

제9과 룻기

룻기-대속의 로망스

The Book of RUTH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고 작은 책입니다. 재판관들의 시대는 죄와 사악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던 재판관들의 시대에 반짝이는 불빛과 같습니다!

성경 개요

- 기록자: 사무엘(탈무드), 기록 시기: 주전 100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10년(어서)
- 수신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 이름: 룻기는 이 책의 여주인공 즉 남편이 죽은 뒤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룻은 다윗 왕(룻4:18-22)과 예수님(마 1:1, 5)의 조상이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Ruth는 히브리어 책명인 '루트'에서 유래되었다. 성경에서 룻기와 에스더기는 유일하게 여자의 이름을 딴 책이다.
- 주제: 메시아가 나올 가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백성의 삶에 간섭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 목적: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것(1:16; 요4:22)

-내용: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파들 간의 쟁투와 이방 세력의 압제로 말미암아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약화되어 있었다. 특별히 이집트 탈출 당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심은 이상숭배로 인해 약화되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재판관 시대의 일반적인 생활상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 출신의 경건한 가정이 겪는 기쁨과 슬픔을 보며 또 사사기 18-20장에 드러난 극도의 배도와 불안 속에서도 보아스와 같이 여전히 주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이루는 사람을 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방 여인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과 충절을 보여 주었다. 룻은 자기의 첫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가 나올 민족을 세우게 하셨는데 바로 이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가족이 룻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 룻기는 4장, 85절, 2,578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룻의 결심), 핵심 절: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 날 네게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4:14)

-핵심 단어: 친족(2:1), 핵심 구: “가까운 친척”(2:20)

-룻기의 그리스도: 우리의 친족-구속자(2:1), 영적 교훈: “곡식을 수확하라.”(시126:6)

등장 인물

룻기는 여호수아기와 같이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 책에는 실제로 세 명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1. 룻(Ruth, 상큼하다)-모압 여자

재판관 기드온 시대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을 버리고 유대로 돌아온 모압 여인. 그녀는 후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는 복을 받게 되었다(마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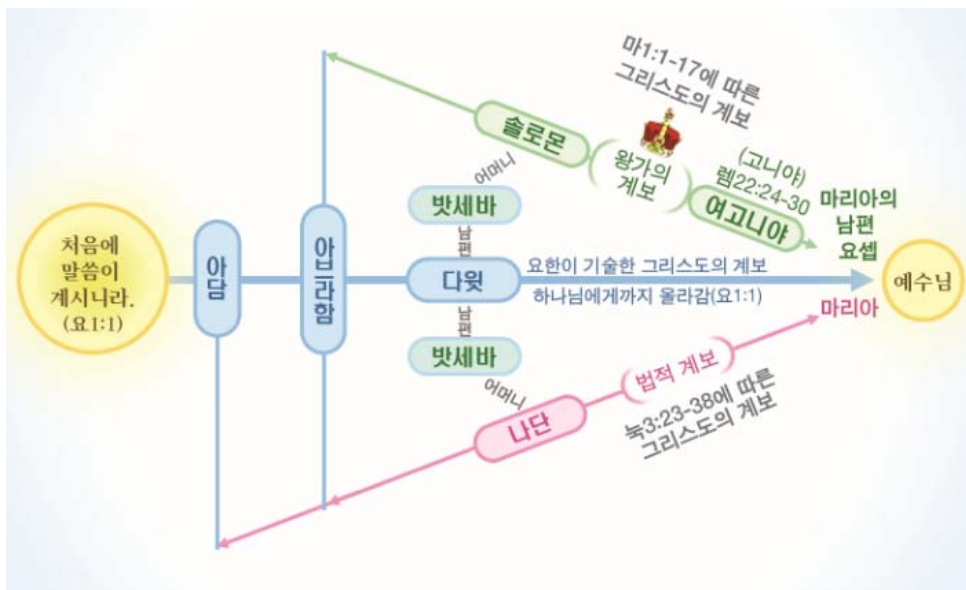
2. 보아스-룻의 남편이 된 유대인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사람(룻2:1)이다. 그는 유대인들의 왕의 직계 조상이며(마1:5) 룻에게 베푼 친절을 볼 때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룻이 요청한 대로 자신을 그녀의 남편의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만들고 레위 율법에 따라 이 가련한 이삭줍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는 오벧의 아버지가 되었고 오벧은 이새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다. 룻의 이야기는 인위적이며 물질적인 호의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위에 서지 못하던 때에 아주 단순한 사랑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3. 나오미-룻의 시어머니(엘리멜렉의 아내)

메시아 계보

우리는 구원자의 계보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룻과 보아스는 이 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룻의 첫째 아들이 오벧이며, 오벧은 다윗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압니다.(룻4:17) 이렇게 룻은 구원자의 위대한 계보에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녀는 메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의 위대한 왕의 족보에서 룻과 보아스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두 개의 중요한 절과 질문들

룻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룻의 관계를 말해주는 두 개의 놀라운 절들이 있습니다.

1) 룻기 1장16절

이 절에서 우리는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녀의 하나님으로 만든 놀라운 결정에 대해 읽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이 되길 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은 이런 결정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2) 룻기 2장12절

이 절에서 우리는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놀라운 결정을 봅니다.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 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당신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당신 자신을 내려놓습니까?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친족 대속자

룻기의 주요 사상은 대속에 대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⁸⁾으로서 무르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까운 친족으로서 대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룻의 전 남편이었던 남자와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는 룻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우리의 위대하신 대속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 대속자이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담당하셨습니까?(히2:14) 그분은 우리의 혈족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고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히2:17). 그분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우리의 친족 대속자이신 분과 결혼합니다! (롬7:4 참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8) 남자 친척. 구약에서 친족은 종종 ‘무를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스라엘은 궁핍할 때에 자기나 가족 혹은 땅을 팔 수 있었으므로(레25:39-43) 다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족으로서 그들을 무를 사람 즉 친족 구속자가 필요했다(레25:25).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룻4).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친족 구속자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히2:11-12, 17).

기억하기- 친족/ 구속/ 구속자

●친족(Kinsman): 남자 친척. 구약에서 친족은 종종 ‘무를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스라엘은 궁핍할 때에 자기나 가족 혹은 땅을 팔 수 있었으므로(레25:39-43) 다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족으로서 그들을 무를 사람 즉 친족 구속자가 필요했다(레 25:25).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룻4).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친족 구속자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히2:11-12, 17).

●구속(Redemption): 속죄와 구속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해된다. 이 두 용어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구속이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말에서는 ‘무르다’ 혹은 ‘속량하다’로도 표현되었다. 그런데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영계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1:14)는 말씀에 나오는 소유물 즉 구속받아야 할 소유물은 바로 바울이 롬8:22-23에서 말하는 양자 삼으심의 대상인 우리 몸이다.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몸의 영원성과 땅의 상속권을 상실했으며 그 후 아담의 씨가 받아야 할 모든 상속물이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다(눅4:6).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성경은 소유주의 가까운 친족이 소유주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레25:23-24)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족으로 예비하셨다. 친족이 되기 위해 먼저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고 하나님은 처녀 탄생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벧전 1:18-20).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영과 혼은 구속되지만 그의 몸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며 완전히 구속된다(빌3:20-21). 또한 주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천년왕국 때에 구속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다.

●구속자(Redeemer):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호칭.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 값을 다 치르사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마20:28; 갈3:13; 엡1:7; 딤후2:6; 딤후2:14; 벧전1:18-19; 계 5:9). 모세의 율법에서(레25:25, 48) 이 호칭은 어떤 사람의 상속 유업을 속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하며 대개 이 사람은 상속 유업을 잃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으로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무를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 이 같은 예로 보아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 엘리멜렉의 유산 상속자인 룻과 결혼하여 그녀의 소유 안으로 들어갔다. 또한 예레미야는 자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리려고 하던 밭을 친족 구속자로 샀다(렘32:7-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다(욥19:25-26). 한편 이런 일을 하는 가까운 친족은 피를 무르는 사람이며 그래서 이것은 복수하는 자 혹은 피를 복수하는 자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바로 이 사람이 역울하게 죽은 자기 친척의 피를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민35:12, 19, 21; 신19:6, 12). 하나님은 이같이 피를 복수하는 자 혹은 피를 무르려 하는 자로부터 무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 도시들을 마련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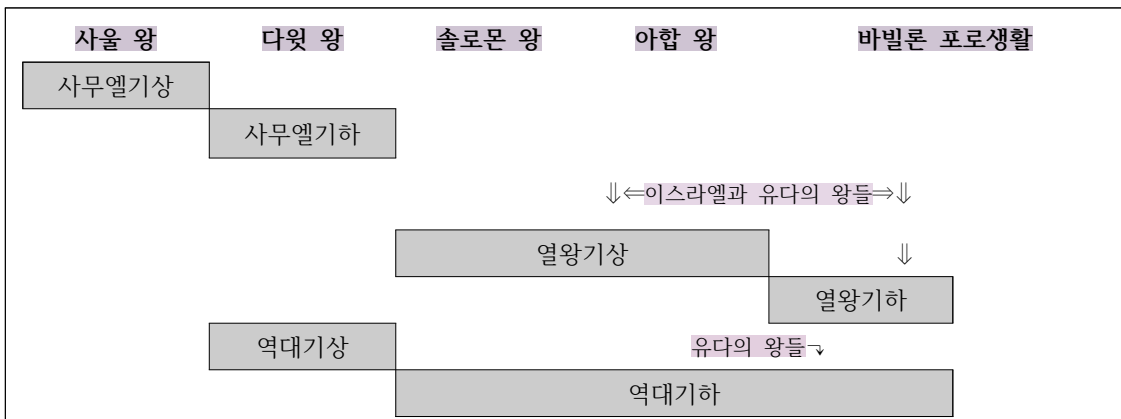
제10과 사무엘기

앞으로 우리는 세 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섯 권의 역사책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책들은 첫 번째 왕(사울)으로부터 바빌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기 전 그 땅을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왕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의 왕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여섯 권의 역사책은 두 개가 연속으로 된 세 권의 책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입니다. 이 책들은 각각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여섯 권의 역사책과 그 내용

사무엘기상	사무엘로 시작하여 사울 왕으로 끝이 남.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삶에 대한 것
사무엘기하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것
열왕기상	다윗 왕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남
열왕기하	B.C. 722년 이스라엘의 멸망과 B.C. 586년 유다의 멸망까지의 왕들
역대기상	다윗의 통치에 대한 것
역대기하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끝이 남

6권 살펴보기



위 그림을 보고 다음의 답해 보세요.

- 사울 왕의 통치에 대해 말해주는 유일한 책을 무엇입니까?
-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 말해주는 두 권의 책은 무엇입니까?
-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다윗에 대해 말해주는 책은 무엇입니까?
- 열왕기상.하의 역사와 같은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 바벨론 포로생활로 끝나는 두 권의 책은 무엇입니까?



사무엘기 알아보기

우리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사무엘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기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무엘기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무엘기상의 주인공	사무엘기하의 주인공
사무엘	다윗
사울	
다윗	

사무엘은 대제사장이며 위대한 대언자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재판관들의 시대와 왕정시대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이 책들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사무엘기로 불립니다.

1) 사무엘은 사무엘기상의 시작부터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출생, 삶, 사역,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무엘기상에 나옵니다.

2)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사무엘기는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삼상10:1), 사무엘기상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며(삼상16:3), 사무엘기하는 다윗 왕과 그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이었고, 사무엘기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국의 시작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상 왕이 있었습니까?(삿21:25)

하나님께서서는 직접 그들의 왕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후반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원했습니다(삼상8:5). 과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길 원했습니까? (삼상8:7)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힘들게 배우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왕을 정말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왕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완벽한 왕처럼 보였습니까? (삼상9:2)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삼상16:7)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상16:7)

사울은 왕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	다윗
사람의 마음을 따른 사람(삼상8:5)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사람(삼상13:14)
사람들이 선택	하나님이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삼상15:1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행13:22)

사무엘기상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쫓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기상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는 것을 봅니다!

핵심 절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삼상2:3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좋은 소식: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하시고 중요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 평생 동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 나쁜 소식: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사무엘	엘리 제사장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 왕
다윗(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심- 사무엘하 7장 참조)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당신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매우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심으로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진짜로 마음을 쏟습니까?

당신은 다윗과 같은 사람 또는 사울과 같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처럼 되기를 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택한 다윗처럼 소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무엘기 개요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사무엘기 상</p>	<p>-기록자: 사무엘 등, 기록 시기: 주전 1070-101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115년(어서),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p> <p>-이름: 사무엘기상 . 하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명칭은 사무엘기상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히브리말로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서 들어 주셨다’를 뜻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기상 . 하는 한 권으로 ‘사무엘의 책들’이라 불렸으며 사무엘의 일생과 그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후에 이 둘은 라틴어 성경에서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열왕기상 . 하는 ‘왕들에 관한 세 번째 책과 네 번째 책’으로 불리게 되었다.</p> <p>-주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으로 말미암은 왕정 통치 제도를 확립하신 것</p> <p>-목적: 대언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창22:17)</p> <p>-내용: 사무엘기상은 재판관 시대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을 보여 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언자와 재판관으로 부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사무엘은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시기 즉 이집트 탈출 사건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회와 종교의 통일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그는 또 대언자 직분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그것을 제사장직과 왕권의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대언자들은 민족의 영적 생활을 지속시키고 백성을 각성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통치자와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통일 왕국 및 분단 왕국의 혼돈 상태에 대한 완전한 역사를 보여 준다. 사무엘기상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엘리와의 교육,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비극적 생애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의 고난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p> <p>-사무엘기상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롬1:3-4), 영적 교훈: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타도록 하라.”(3:3; 마5:14-16)</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사무엘기 하</p>	<p>-기록자: 나단(전승) 등, 기록 시기: 주전 1070-101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38년(사울의 사망으로부터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 수신자: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이름: 사무엘기상 참조</p> <p>-주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p> <p>-목적: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복을 보여 주는 것</p> <p>-내용: 사무엘기하에는 다윗의 통치의 시작과 그의 타락과 그것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전 상태로 회복되는 일, 그리고 그의 왕국의 후반부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사무엘기상이 엘리와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 사람의 실패를 부각시키는 반면에 사무엘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질서를 회복시키고 왕정 정치를 정착시키는 것을 부각시킨다. 또한 이 책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로(삼하5:6-12), 시온이 종교적 중심지로 확립되는 것을 보여 준다(삼하5:7; 6:1-17). 질서가 확립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의 계통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다(7:8-17).</p> <p>-사무엘기하의 그리스도: 다윗의 주님(7:4-17), 영적 교훈: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부르라.”</p>

제11과 열왕기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바빌론 포로생활까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두 책들은 약 400년간(4세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왕국의 분열과 패망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 대해 일부 배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의 초반에서 다윗왕의 죽음에 대해 읽게 되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왕국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런 솔로몬 왕국도 그의 죽음 이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 되었습니다:

- 1) 여로보암이 지배하는 북 왕국: 이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위치하였으며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 2) 르호보암(솔로몬의 아들)이 지배하는 남 왕국: 이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에 위치하였으며 유다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정복된 왕국들

이 두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마음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악한 북 왕국 이스라엘 땅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치하의 바빌론 사람들을 보냄으로 남 왕국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은 바빌론 사람들에게 정복당했으며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왕국이 멸망해 정복당했는지를 배웁니다.



위대한 대언자들의 등장

우리는 열왕기를 읽을 때 대언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는 사람으로서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반대로 점점 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열왕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명의 위대한 대언자들의 삶에 대해 배웁니다.

- 1)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Elijah)에 대해 배웁니다.
- 2)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Elisha)에 대해 배웁니다.

왕들에 대한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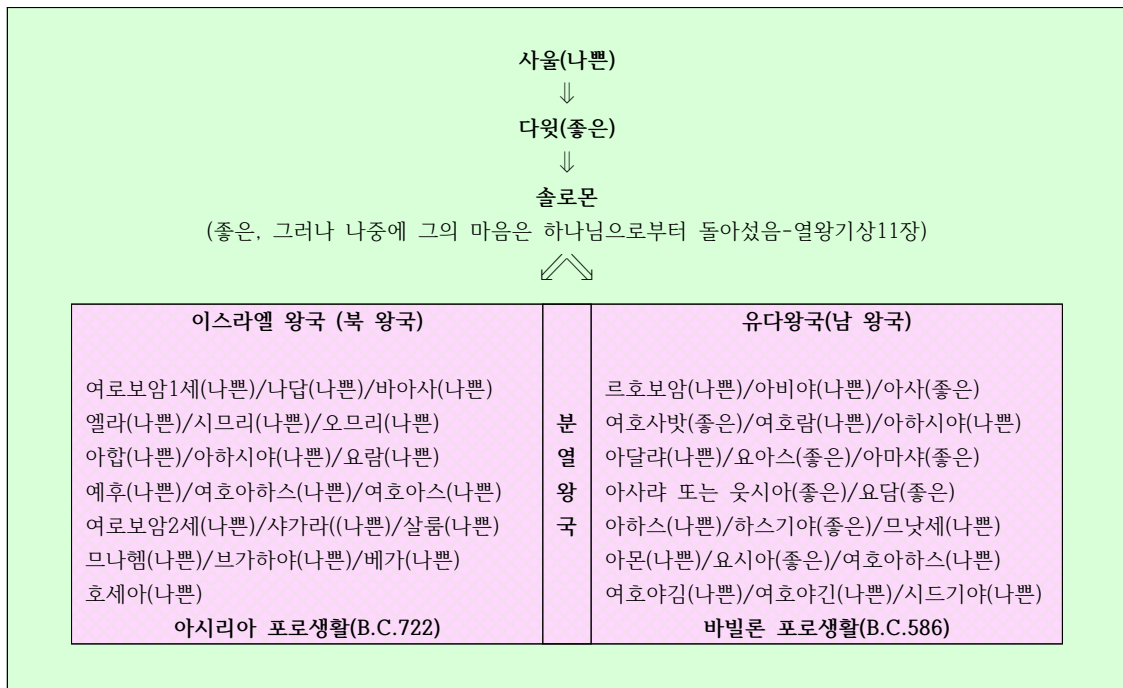
왕들에 대한 이 두 권의 책들은 솔로몬으로부터 바빌론 포로생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든 왕들의 이름이 소개하는데, 보통 한 왕의 이름이 소개될 때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주어집니다.

1. 왕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2. 그가 유다의 왕인지 이스라엘의 왕인지 말해줍니다.
3. 그가 몇 살에 통치하기 시작하였는지 말해줍니다.
4. 왕으로 얼마나 통치했는지 말해줍니다.
5.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나쁜 왕(악하게 행함)인지, 좋은 왕(바르게 행함)인지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15장1-4절에 나오는 아사라 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아래의 물음에 답해 보세요!

- 그는 유다의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그는 몇 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였습니까?
 그는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에 대해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은”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올바른 것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쁜”이란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악한 것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좋은 왕이 악한 것들을 하고, 악한 왕이 좋은 것들을 할 때도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기

이스라엘 북 왕국에는 얼마나 좋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왕국이 대체로 좋은 왕들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왕국을 먼저 심판하셨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은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남 왕국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로 뒤에 있는 이름은 그 앞에 있는 이름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여호사밧은 요람(여호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왕이 악한 아들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쁜 왕이 좋은 아들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좋은 왕이 좋은 아들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쁜 왕이 나쁜 아들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두 책의 비교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윗 왕으로 시작	바빌론 왕으로 끝남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	여호야긴의 수치로 맺음
순종의 축복으로 시작	불순종의 저주로 끝남
성전 건축으로 시작	성전의 화재로 끝맺음
왕국의 분열을 보여줌	각 왕국의 멸망과 무너짐을 보여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보여줌. 사악한 왕들이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 대한 자신의 심판을 연기시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보여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를 지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심.
엘리아에 대해 말함	엘리사에 대해 말함

핵심절

열왕기의 핵심 절은 열왕기상 18장21절에 나옵니다. 엘리아는 거짓된 바알 신을 섬기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___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_____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아는 그의 시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그분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열왕기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고통으로 끝이 난 것을 배우게 됩니다.

☛ 북 왕국에 대한 고통: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_____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들이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니 마침내 _____께서 자신의 종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친히 _____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앞에서 _____.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_____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서 이 날까지 이르니라.”(왕하17:22-23).-아시리아 포로생활 시작 됨.

남 왕국에 대한 고통: “_____ 왕이 하맛 땅의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_____가 _____사로잡혀 갔더라.”(왕하25:21).- 바빌론 포로생활 시작 됨.

사람의 선택

만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를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신이 아닌 신들을 섬기고 따릅니다(고전8:4-6).

거짓 신들을 따르는 것이 많은 왕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남 왕국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들(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좋은 왕들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했으며, 많은 좋은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예를 들면 왕하15:3-4). 이 “산당”들은 산의 꼭대기에 있는 우상 숭배의 장소였으며,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곳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했습니다! 많은 왕들은 즐거이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오직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 분의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왕하18:4-6)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는 포로생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왕하17:9-12).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이 우주의 진짜 왕이십니까?
그분은 진짜 당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5:21). 이것은 실제도 아니며, 올바르지도 않은 것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섬기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과거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데전1:9)

당신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요8:12)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왕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제12과 역대기

구약성경에 있는 두 개의 역사서

첫 번째 연대기: 역대기상(The First Book of the CHRONICLES)

두 번째 연대기: 역대기하(The Second Book of the CHRONICLES)



역대기 살펴보기

이 책들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성경의 처음 나오는 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공 연대기 등을 사용하여 이것들을 기록하였다(대하9:29; 16:11; 20:32). 역대기상은 창조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하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의 역사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를 기록한다. 다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바로 이것이 열왕기상하와 다른 점이다. 한편 같은 왕에 대한 역사 기록들은 열왕기상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이 두 책은 주로 공적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이 예비한 것들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또한 다른 왕들의 종교적 행적을 상세히 기록한다(대상 13:8-11; 대하11:13; 19:8-11; 26:16-19 등).

역대기는 사무엘기와 열왕기와 함께 읽는 것이 좋은데 이 책들은 한결 같이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국가의 흥망성쇠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해서 보여 줍니다(잠14:34). 역대기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읽을 필요가 있으며, 지난 시간에 나왔던 도표에서 보았듯이 역대기는 사무엘기하와 열왕기와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더하기 위해 이미 다뤘던 것(사무엘기와 열왕기에서)을 반복하셨습니다.


“역대기”라는 단어는 “시간 순서로 배열된 연속적이고 자세한 역사적 사건들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시대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상세한 역사책을 주셨습니다.

역대기는 서기관 에스라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에스라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역대기하의 마지막 2절은 에스라의 첫 3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첫째 연대기(역대기상)는 사무엘하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다윗의 통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대기(역대기하)는 열왕기상과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솔로몬부터 바빌론 포로생활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남 왕국)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윗의 계보에 있던 왕들입니다.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나온다면, 언제나 유다 왕과 관련될 때만 언급되었습니다.

 **역대기 개요**

역 대 기 상	<p>-기록자: 에스라,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41년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이름: 역대기는 역사적 사실들을 연대별로 기록한 글로서 히브리말로는 ‘그 시대의 말씀들’을 뜻하는 ‘디브레하야임’이라 불렸다. Chronicles는 거룩한 역사 연대기를 뜻하는 라틴어 성경 제목 ‘크로니코룸 리베르’에서 유래되었다. 역대기상 . 하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특히 유다 왕국의 사건들이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원래 역대기상 . 하는 한 권이었으나 후에 현재와 같이 두 권으로 나뉘었다. 또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 배열에서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맨 끝에 위치하였다. 사무엘기상 참조. -주제: 아담부터 다윗의 등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 예배 목적: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새 세대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 즉 약속된 왕 메시아의 계보를 알려 주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재건을 준비하게 하는 것</p> <p>-내용: 열왕기상 .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를 평행으로 보여 주지만 역대기상 . 하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긴 족보와 함께 주로 남 왕국 유다의 사건들을 보여 준다. 특별히 역대기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와 유다 왕국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또 역대기상 . 하는 사무엘기상 . 하와 열왕기상 . 하의 사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주석서라 할 수 있다. 역대기상 . 하는 종교적이고 제사장과 성전 중심적이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치리하신다는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록한 반면에 사무엘기상 . 하와 열왕기상 . 하는 왕족의 입장에서 왕의 일들을 다루고 왕좌 중심적이며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다른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역대기상 . 하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상은 29장, 941절, 20,369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1장(다윗이 왕이 됨), 핵심 절: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시라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15:2)</p> <p>-핵심 단어: 통치하다, 핵심 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29:16) -역대기상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가의 계보를 지켜라.”</p>
역 대 기 하	<p>-기록자: 에스라, 기록 시기: 주전 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427년(어서), 수신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이름: 역대기상 참조 -주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느부갓네살의 성전 파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향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목적: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나 복을 주실 때나 언제든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시119:75; 히12:6-13)</p> <p>-내용: 역대기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좌에 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책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이 언급되는 곳은 왕국이 분열되고 북 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기록한 부분뿐이다. 나머지 부분은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유다 왕들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유다가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암시가 들어 있다(스1:1-4 참조). 역대기하는 36장, 822절, 26,07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7장(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조건과 약속), 핵심 절: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15:2)</p> <p>-핵심 단어: 굳게 세우다, 핵심 구: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즉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30:19) -역대기하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교훈: “왕에게 존귀와 영예를 돌려라.”</p>

▶ 핵심 절

역대기의 핵심 절은 역대기하 16장9절에 나옵니다. “주의 _____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_____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_____을 보이시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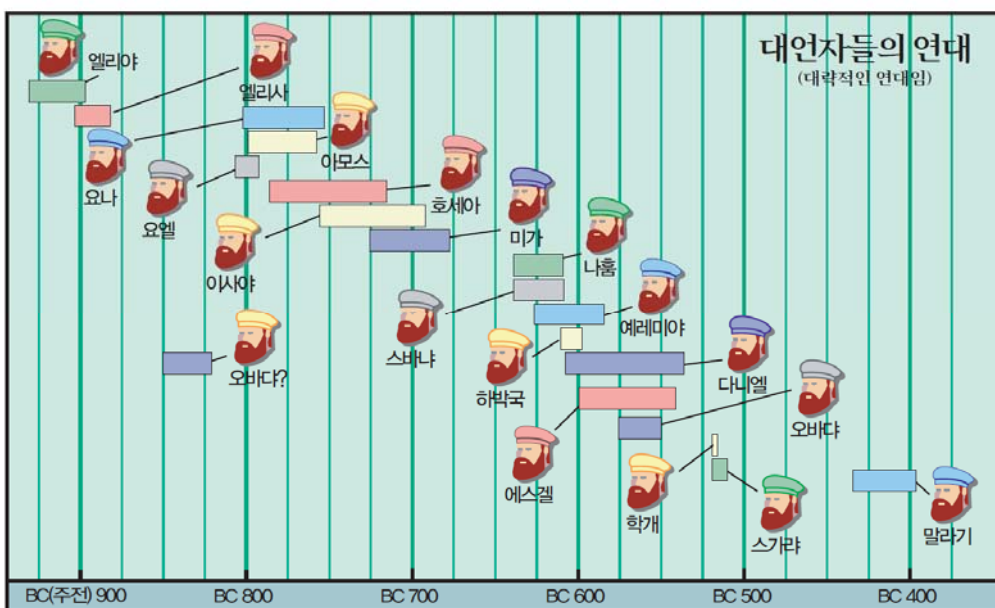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며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을 위해 그 땅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발이 달렸음을 말해줍니다(주의 눈이 온 땅을 이리저리 달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눈과 발을 가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잘 보시며 두루두루 잘 다니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전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졌습니까?(대하16: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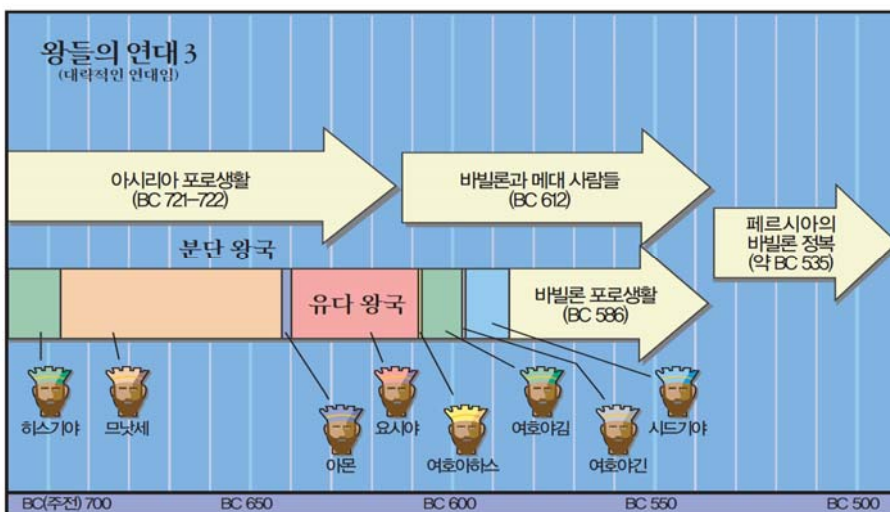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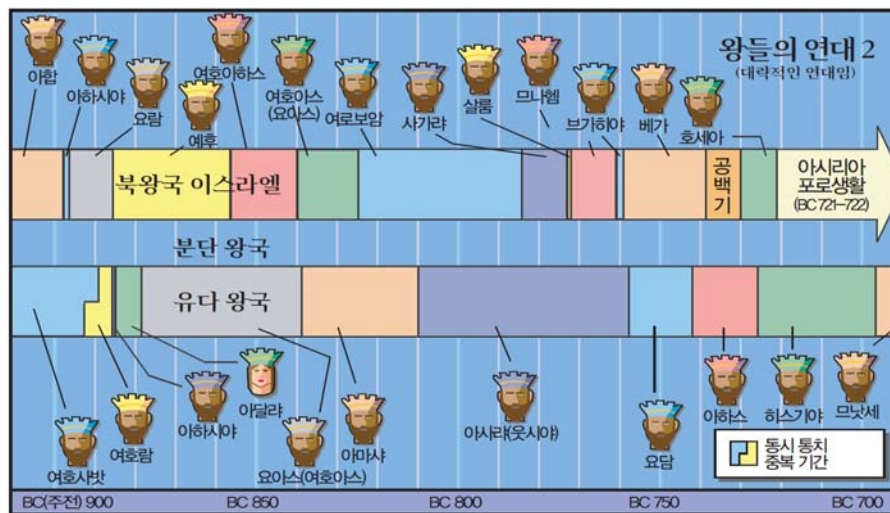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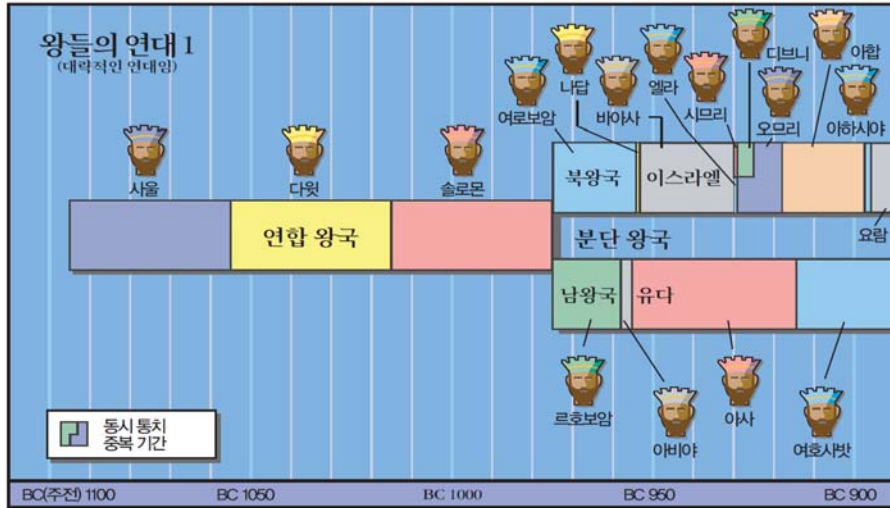
이 핵심 절은 실제로 사무엘기상 2장30절(사무엘기의 핵심 절)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강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땅을 두루 달릴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보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 ▶ 만일 당신이 그분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분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십니다!(사무엘기)
- ▶ 만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섬기고 따르세요! (열왕기) 우상들을 섬기거나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기)

▶ 대언자들의 연대



 왕들의 연대



제13과 에스라.느헤미야기.에스더기(1)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는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세 권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들은 우리들에게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 유대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빌론 포로생활은 7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유대 왕국의 대부분은 바빌론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연 유대 사람들은 이 먼 이국 땅에서 행복했을까요? (시137:1-4)

결코 그들은 자신들의 고국과 사랑하는 예루살렘 도시를 잊지 않았습니다(시137:5).

70년 포로생활

당시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 중 한명인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는 어느 방향으로 향했습니까? (단6:10) 그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에게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였습니까? (렘25:12) 이것은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보내셨고 고레스는 바빌론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70년이 지나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렘29:10).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대기하의 마지막 두 절과 에스라의 첫 두절에서 이러한 귀환에 대해 읽습니다.

세 번의 예루살렘 귀환

에스라와 느헤미야기는 세 번에 걸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스룹바벨이 이끈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총독이며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포로들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앞부분에서 이 귀환에 대해 읽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에스라 2장64-65절에 나옵니다. 종들을 계수해보니 고국 땅으로 돌아온 수는 약 5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는 매우 작은 무리입니다! 성경은 이 작은 무리를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바빌론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떠날 것을 허용하자마자 그들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1:1-3 참조)

5만 명의 사람들은 큰 무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의 인도 하에 약속된 땅으로 온 유대인들의 숫자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약속된 땅으로 왔습니까? 민수기 26장51절을 보세요. 이 숫자에 비하면 5만 명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다!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하36:19) 유대의 남은 자(소수의 유대인들)들이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 성전에는 재와 돌무더기와 쓰레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습니다!

2) 에스라가 이끈 두 번째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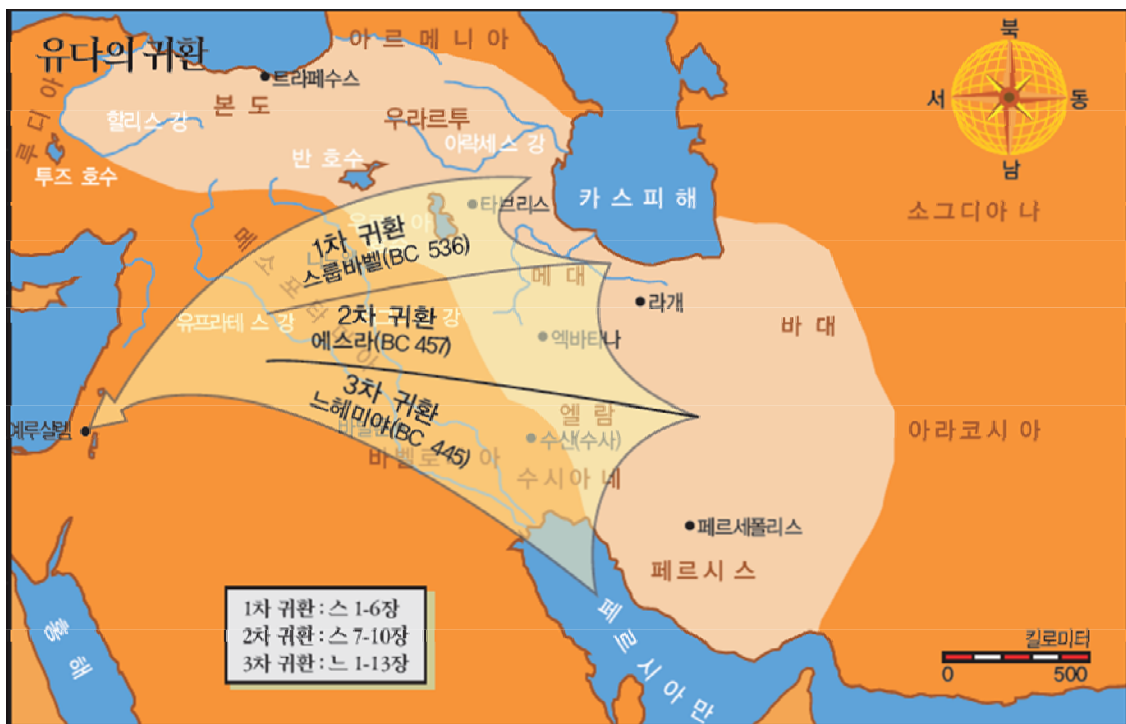
약 80년이 지난 후 다른 유대인 무리가 위대한 성경 교사인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작은 집단이었습니다(약 2만 명 정도). 우리는 에스라 7장과 8장에서 이 사람들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3) 느헤미야가 이끈 세 번째 귀환

약 13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기 2장에서 이것을 읽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큰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대인들을 독려하여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도시가 높고 튼튼한 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장식용으로/ 아이들이 돌아다니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시를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성들의 애완용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왕들의 이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당신이 이 왕들의 이름을 읽을 때 그 왕이 누구이며 언제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레스 대왕 (B.C. 550-530)

이 왕은 이사야가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기 위해 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왕입니다(사44:28; 45:1-5). 그는 바빌론을 정복한 다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스1장). 또한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일 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단1:21; 10:1).

2. 캄비세스 (B.C. 530-522)

3. 스메르디스 (1년 미만 통치함)

4. 다리오 대왕(B.C. 521-486)

다리오는 성전 사역이 어떤 방해도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칙령을 제정하였습니다(스6장). 성전이 완성된 것은 그의 통치기간 중이었습니다(스6장).⁹⁾ 그의 본명은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로 에스라와 학개 그리고 스가랴 대언자에 의해 언급되었고, 이 왕은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나 그 후에 유보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유대인들이 공사를 하도록 허가한 인물입니다(스4:1-24; 5:1-17; 6:1-22; 7:1-28). 그는 주전 521년경에 마기승족의 왕위 찬탈자 스메르디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36년 동안 통치하였으며, 정부를 수사(수산)로 옮겼습니다. 그는 바빌론이 자기를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키자 반역을 제압하고 바빌론의 성벽을 무너뜨려 렘51:58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5. 아하수에로 또는 크렉스세스 (B.C. 486-464)

이 왕은 에스더기에서 우리가 읽은 왕입니다. 에스더는 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에스라 4장 6절에도 언급됩니다.

6. 아닥사스다 I (B.C. 464-423)

처음에 이 왕은 유대인들이 도시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라는 칙령을 보냅니다(스4:6-23 참조). 그러나 나중에 그는 자신의 잔을 드는 자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느1-2장). 또한 먼저 에스라가 귀환할 것을 허락했던 왕이기도 합니다(스7-8장). 이 왕들은 모두 위대한 왕들이었지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를 읽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더 위대한 왕이 있음을 배웁니다!



세 권의 책들과 네 개의 실제 이야기들!

에스라는 매우 흥미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에 두 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6장까지는 첫 번째 책(제1권)을, 마지막 4개의 장에서 두 번째 책(제2권)을 보게 됩니다. 6장과 7장 사이는 약 58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8년의 차이! 이 기간 동안 에스라에

9) 이 왕과 다니엘서에 언급된 메데의 다리오(단5:31; 6:1 참조)와 혼동하지 마세요. 메데의 다리오는 고레스 대왕의 통치시대에 바빌론의 총독이었습니다.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 에스라 10장 이후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에스라,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실제로는 네 개의 이야기를 가지게 됩니다.

- 1) 스룹바벨 이야기(스가랴 1-6장)/ 2) 에스더 이야기(에스더기)
- 3) 에스라 이야기(스가랴 7-10장)/ 4) 느헤미야 이야기(느헤미야기)

제1권-스룹바벨 이야기(에스라 1-6장)

주인공들	스룹바벨(세스바살이라고도 부름), 총독 여호수아(요수아) 대제사장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던 사람들임)
페르시아 왕들	고레스 대왕(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함) 다리우스 대왕(그의 재임기간에 성전이 완성됨)
주요문제	성전이 재건되는 것
반대 세력	사마리아의 적들(스4-5장)

핵심 절

핵심 절은 에스라 5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눈이 그분의 백성들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핵심 절은 에스라 1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눈이 그의 백성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으며 분명히 힘센 군대도 아니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들의 적들인 그 땅의 백성들에게 돌려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들에 대해 에스라 4-5장에서 읽습니다. 이 적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적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까? (스6:15)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눈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적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눈이 당신 위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감독이신 분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목자의 일은 그의 양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살펴보고 돌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는 위대하신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서 적들을 만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적들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말했던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Thou God seest me!)”

제14과 에스라.느헤미야기.에스더기(2)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권의 책들과 네 개의 실제 이야기들의 대략을 살펴보았고, <제1권-스룹바벨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권- 에스더 이야기>와 <3권-에스라 이야기> 그리고 <4권-느헤미야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에스더 이야기(에스더기)

주인공들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왕비/ 유대인 모르드개/ 악한 대적 하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크렉스세스로도 알려짐)
주요문제	모든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게 됨!
반대 세력	사악한 하만,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음모를 꾸민 마귀의 사람

에스더기 살펴보기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에스더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놀라운 생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책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¹⁰⁾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에스더기를 펴면 위대한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에1:2). 그의 왕국은 아주 커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에1:1). 이 땅에서 더 위대한 왕은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여호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빌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 갔고 아하수에로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국과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룹바벨의 이야기에서 배운 대로(스1-6장), 유대인 중 소수의 남은 자 만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왕좌에 계셨습니까? 여호와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바빌론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폐지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세상과 사람들의 정사를 통치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며 전체를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무대 뒤”에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엡1:11),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깨달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왕좌에 계십니다(단4:33-37 참조). 하나님은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십니다(페르시아 왕국도 포함)--역대기하 20장6절 참조. 하나님은 자신의 왕좌를 하늘

10) 에스더기와 솔로몬의 아가를 제외한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시103:19) 또한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 뿐 아니라 사탄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에스더기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책 전체를 통해 우리는 사탄의 악한 손이 일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탄은 “무대 뒤”에서 그의 사람 하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는 마귀적인 시도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온 나쁜 소식

사탄의 사람 하만은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왕으로 하여금 어느 날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 죽이라고 명령하는 칙령에 날인하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에3:13 참조) 더 나아가서 왕의 칙령은 변경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멸망될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민족은 끝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역사의 전 과정을 바꾼 한 사건이 있었고 유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절

우리는 에스더기 6장1절에서 이것을 읽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왕은 잠을 자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사악한 하만이 패하고 유대 민족이 구원되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실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왕이 이 특정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운이 좋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고 익숙하지 않고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지만 어디서나 그분의 손이 나오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자신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스더기의 핵심 절은 에스더기 4장14절에 나옵니다(하반절).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유대인 모르드개¹¹⁾는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비로서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 말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상황에 개입되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는 또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에스더기 1-2장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배웁니다).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때를 위해” 그녀가 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모르드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기를 읽을 때 모르드개가 옳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합당한 때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가 지금의 부모님을 가지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하여 내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

11) 에스더의 사촌.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정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 명예롭게 되었다.

시며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합당한 때 합당한 곳에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눈이 멀어 자신들의 삶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에스더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도우시는 분일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위해 일하시는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하만이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제3권-에스라 이야기(에스라 7-10장)

주인공들	제사장 에스라(서기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I
주요문제	혼합 결혼(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교도들과 결혼하게 됨)
반대 세력	내부로부터의 반대: 죄



핵심 절

핵심 절은 에스라 8장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들이 한 것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은 큰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기의 핵심절인 사무엘기상 2장30절에서 동일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에스라 7-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구절을 6번 볼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 시대 뿐 아니라 오늘도 사실입니다. 에스라 9-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향한다.”는 구절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7-8장에서 여러 번 읽었을지라도 마지막 2장에서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두 장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 말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아내들(유대인이 아닌)과 결혼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신7:1-4 참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에게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축복의 선한 손을 거두셔야만 합니다. 에스라의 좋은 모범으로 인해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이방 아내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할 때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난 후에 우리는 다시 어떤 놀라운 구절들을 읽게 됩니다.(느2:8; 2:18 참조)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히11:6).

제4권-에스더 이야기(에스더기)

주인공들	느헤미야와 에스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I (느헤미야는 그의 잔 드는 자)
주요문제	도시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
반대 세력	그 일을 방해하려는 그 땅의 민족들(느헤미야 4장 참조)

핵심 절

느헤미야기의 핵심 절은 느헤미야 6장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의 적들은 그가 그의 일에서 내려와 마을에 있는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느6:2). 이것은 느헤미야를 멸망시키려는 교묘한 음모였습니다(느6:2). 느헤미야는 자신이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 심지어 마귀까지도 자신을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 믿는 자들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고전15:58)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성공하였습니까? 그는 아주 간단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기에서 다른 핵심 절은 느헤미야 1장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3절 참조)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벽 건축이라는 큰일을 위해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기에서 7번이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발견합니다! 느헤미야기 2장4-5절은 그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¹²⁾ 당신은 느헤미야기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구절 10곳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기에서 기도를 발견하고 에스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에스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0번 언급되었습니다.¹³⁾ 느헤미야기 8장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에도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행6:4 참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에스라 9장4절과 10장3절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들을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였습니까? 당신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입니까?

12) 이것은 짧은 기도였으며 왕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조용히 말하는 기도였음.

13) 스1:1; 3:2; 6:14; 6:18; 7:6 7:10; 7:14; 9:4; 10:3; 10:5/ 에스라는 위대한 서기관이며 성경교사였음

제15과 욥기와 시편(1)

구약성경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역사책을 떠나 시가서로 가야 합니다. 구약에는 6권의 시가¹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두 시가인 욥기와 시편에 대해 살펴 볼 것입니다.

히브리 시가

구약의 시(히브리 시)는 영어 시와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시나 노래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는 단어들의 운율을 맞추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많도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위의 예에서 운율을 가진 단어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유사한 것에 근거한 시입니다(운율이 있어서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단어). 히브리 시가는 소리의 유사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개념의 유사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가에서는 두 개의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평행법이 무엇입니까?

“평행법”을 생각할 때 “평행하는”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평행하는”에 대해 생각할 때 기차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차길은 나란히 있습니다. 두 개의 선로가 서로 나란히 평행으로 달립니다. 다음은 시가에 나타나는 세 가지 평행법입니다.

1. 동의적 평행법(Synonymous Parallelism)

이런 종류의 평행법에서는 개념이 반복됩니다! 어떤 것이 말해지면 다음에 같은 것이 다른 단어로 말해집니다. 욥기 4장17절을 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둘째 행은 첫째 행의 개념을 반복하고 있음을 주의해 보세요. 같은 생각(같은 예나 같은 질문으로)이 반복되지만 다른 단어로 됩니다. 둘째 행은 첫째 행의 생각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 개의 기차길에 대해 생각한다면 두 선로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적 평행법에서 두 선로(두개의 서술)는 본질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단어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예레미야 애가

2. 반의적 평행법(Antithetic Parallelism)

이런 평행법에서 개념은 반대가 됩니다! 한 개념이 주어지면 다음에 반대의 생각이나 개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예는 잠언 12장2절에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징죄하시리라.”

여기서 둘째 행이 첫째 행과 반대되는 생각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 행은 선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둘째 행은 사악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사악한 사람은 고난에 빠집니다(징죄를 받습니다!). 둘째 행은 다르거나 반대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두 개의 기차선로를 생각한다면 선로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3. 내성적 평행법(Synthetic Parallelism)

이런 종류의 평행법에서는 절의 후반부를 확대하거나 상반부의 생각을 전개시킵니다. 한 개념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거나 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주어집니다. 이 예는 잠언 16장5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절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하나님께서서는 교만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교만한 사람에 대한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할 뿐 아니라 교만한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두 개의 기차선로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선로가 놓여있고 그 다음 다른 선로는 좀 더 발전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아주 현대적인 고대의 책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5권의 책(창세기~신명기)을 쓰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우리가 읽은 것이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토록 옛날 책이라도 현대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는 극적인 시의 형태로 기록된 구약성경의 책이며,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문제를 다루므로 지혜서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욥기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여야 함을 보여 주고,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해도 허사인 경우가 많으며, 실로 많은 경우에 의인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세상이나 자신의 본성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은 다른 의지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든지 혹은 이해하지 못하든지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임을 발견하였고, 우리도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될 때 욥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누구였습니까?

욥은 실제 지구상에 살지 않았던 가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욥기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괜찮은 이야기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역사상 실제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라고 믿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기 전에 욥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나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실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14절과 14장20절을 읽어 보세요. 이 말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4절에서 마지막 4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언급하신 세 사람은 누구 입니까?

노아는 역사상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¹⁵⁾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습니까? (마24:15. 참조) 그러므로 욥은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지구라는 행성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언급한 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욥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믿음은 잃지 않은 사람!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배우기 위해서는 단 세 장만 읽어도 됩니다. 첫 두 장은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해 말해 주며, 마지막 장은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장은 욥기의 핵심 질문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책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욥을 소개 받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습니다.(욥1:1) 하나님께서는 욥기1장 6절에서 천상의 장면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을 위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욥1:9-10).

사탄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간다면 욥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욥1:11)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습니다(욥1:11). 그러나 욥 자신을 해하거나 직접 손을 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욥1:12). 사탄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 13-19 절을 읽을 때 사탄이 일으킨 무시무시한 것들을 읽게 됩니다.

이 절들에 의하면 욥이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욥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빼앗겼을 때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맞았습니까?(욥1:20-21)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욥1:22)

당신은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욥의 입장에서서는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이었습니다!(욥1:21) 아마 우리 역시 사탄이 이것들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5) 마태복음 24장37-3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노아가 역사상으로 실존했다고 믿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가르치다.

우리는 욥기 2장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욥에 대한 실제 시험은 그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자신의 육체가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욥2:5)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육체를 상하게 허락하셨습니까? (욥2:6)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취할(그를 죽일)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사탄은 나가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욥2:7-8). 욥은 왜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맞았습니까? (욥2:9-10)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까? (욥2:10)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입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사탄이 틀렸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2장 끝에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을 만납니다(11-13절).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했으나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욥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욥16:2)

이 사람들은 욥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벌하고 계신다네. 자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고통은 죄의 결과이거든! 우리는 자네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자네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벌은 죄에 걸맞아야하기 때문에 벌이 중하다면 자네는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어.”

이것은 우리가 욥기의 핵심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아! 나쁜 사람만 고통을 겪는 법이지. 욥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진 것이 틀림없어.”

이 문제를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의 어떤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해 병이 들었고(고전11:29-31),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행5장). 또한 의로운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지옥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시73:3,12,13,14). 이런 면에서 욥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지만(욥1:1, 겔14:14,20),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제16과 욥기와 시편(2)

우리는 이미 욥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중요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욥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욥23:10).



욥이 고통 받는 진짜 이유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놀라운 시험을 하시는데, 그분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욥기 38-4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까? 욥은 이 질문에 많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로우신 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이 시험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그는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핵심 절

욥기의 핵심 절은 42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놀라운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을 실제와 같이 본 것입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았습니다! 욥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합니다! 나는 왜 내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욥의 고통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배우도록 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하고 당신은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기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욥42:10-17) 우리는 신약 시대로 넘어 오게 되면, 진실로 죄가 없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의로운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벧전 3:18)



시편-경배와 노래의 히브리 책

시편¹⁶⁾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히브리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읽게 됩니다!

시편은 찾기가 쉽습니다. 성경 중간을 편다면 아마 시편 어딘가가 나올 것입니다(적어도 시편과 가깝게!).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그는 “높이 일으켜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불립니다(삼하23:1).

“시편”이란 단어는 “악기를 반주하면서 부르는 시”를 말합니다. 시편은 실제로 불리는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작사자였고 이 노래들을 하프를 타면서 불렀습니다(삼상 16:16,18,23).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썼지만 유일한 작사자는 아니었습니다.¹⁷⁾



핵심 절

시편에는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서 핵심 절을 하나 택하기는 어렵습니다(여러분은 각 시편마다 핵심 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일반적 주제는 찬양입니다. 또한 시편에서 가장 마지막 절(시150:6)은 핵심 절로 선택하기 좋은 절입니다.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자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찬양¹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긴 시편과 가장 짧은 시편 시편

어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며, 어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시편 110-120편을 빨리 훑어보세요. 어느 시편이 가장 짧습니까? 어느 시편이 가장 길습니까?

가장 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각 절마다 매번 언급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각 절마다 언급됩니다! (직접 또는 대명사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이토록 긴 시편을 읽었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편

시편에는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시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16) 시편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요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시편은 헌신하려는 사람을 위한 성경 요약이며 기독교의 실제적 경험을 표현하는 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귀중하다 할 수 있다.

17) 시편 90편은 누가 썼습니까? (시편 90편 아래 글자를 보세요.) 시편 72편은 누가 썼습니까?

18) 하나님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함

1) 알파벳순의 시편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입니다. 알파벳순 시편에서 1절은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고, 2절은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마지막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영어의 자음은 26자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알파벳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어떤 성경들은 각 악절 앞에 히브리 글자를 적어 놓은 것도 있음). 이것은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고, 각 각 8절로 된 22개의 악절이 있습니다. 각 악절마다 모든 8개의 절이 히브리 알파벳과 같은 글자로 시작합니다.¹⁹⁾

2)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할렐루야 시편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시편117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3) 감사 시편

시편 136편은 왜 감사를 드리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까?²⁰⁾ 136편의 각 절에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찬양 시편

시편 150편에서 “찬양하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발견합니까?

5) 역사적 시편

어떤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위대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로 다시 데려옵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시편 105편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6) 속죄의 시편

이것은 “회개와 같이 잘못된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섬으로써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후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시편들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7) 저주의 시편

이러한 시편들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것 중 하나는 시편 58편입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다윗이 사용한 강한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었고, 오른쪽에서 부터 쓰고 읽습니다. <1. 알레프, 2. 베트, 3. 끼멜, 4. 딸레트, 5. 헤, 6. 바브, 7. 자인, 8. 헤트, 9. 테트, 10. 요드, 11. 카프, 12. 라메드, 13. 멤, 14. 눈, 15. 싸메크, 16. 아인, 17. 페, 18. 차데, 19. 쿼프, 20. 웨쉬, 21. 싰, 22. 타브>

20) 1절과 마지막 절을 볼 것

8) 메시아 시편

메시아에 대해 말해 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시편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눅24:44) 가장 놀라운 메시아 시편 중 하나는 시편 22편입니다(십자가 시편으로 알려짐).²¹⁾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나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절을 찾을 수 있습니까?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마27:46 참조).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십자가 밑에서 그분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해주는 절을 찾을 수 있습니까? 18절은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게 합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벌거벗음에 대해 말해주는 절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책

시편은 마음의 책입니다. 시편기자는 우리들에게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시62:8). 이것은 다윗과 다른 기자들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프며 낙담할 때, 두렵고 떨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저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5-6절에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시편기자는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고 정직하게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시51:3-4).

당신이 시편을 읽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깊은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쓰고 그들이 노래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슬픔과 회한의 시간이든지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든지 시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오늘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시139 상반절 참조) 우리가 슬프거나 외롭거나 걱정하거나 두렵다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말하기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기도로 시간을 보냅니까? 당신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하나님께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까?

어떤 목소리를 가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을 통해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과 마음으로부터 찬양하는 법을 더욱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21) 그리스도의 부활과 왕으로 다시 오심에 대해 말하는 다른 메시아 시편도 있습니다.

제17과 잠언

우리는 구약을 계속 여행해 나가며,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더 시적인 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이 세 권은 모두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솔로몬과 잠언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인가?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왕상2:1-3)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왕상15:3.5) 솔로몬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잘 섬겼던 경건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였습니다(대상28:9).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으라(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섰고, 결국에는 그의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출발은 잘하였음을 보여주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요구하면 나는 줄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왕상3:9-12)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왕상3:12) 그밖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왕상3:13)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예는 열왕기상 3장 16-28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 당신은 이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세바의 여왕이 그를 시험하려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왕상10:1-3)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쓴 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의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았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적어도 신약에서 13 권을 쓸 수 있는 많은 지혜를 주셨듯이(벧후3:15-16),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약에서 3 권을 쓸 만큼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몰락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시고 열왕기상 9장6-9절에서 강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지 말라고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상9:6) 솔로몬은 이 중요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생애 말년에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솔로몬도 이것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또한 죄에 쓰러졌고 그 파멸은 컸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몰락을 열왕기상 11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몰락은 그가 젊었을 때 일어났습니까, 늙었을 때 일어났습니까?(왕상11:4)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주를 완전히 따랐습니까? (왕상11:6) 솔로몬은 주께 순종하였습니까? (왕상11:10)

우리는 또한 느헤미야기 13장 26절에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깊은 죄에 빠졌을지라도 그는 이 끔찍한 경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쁘지만 죄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은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나쁜 삶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그 죄로부터 배우기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비록 죄에 빠졌지만, 그가 배운 귀중한 교훈은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잠언-실제적인 지혜의 책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임을 보았습니다(잠1:1). 솔로몬 왕은 책의 대부분을 썼으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의 마지막 두 장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잠30:1, 31:1 참조). 잠언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잠언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오랫동안 사용된 간결한 지혜의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에서 영어를 배우면, 일반적인 잠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1) “서두르면 망친다.”

당신 삶에서 서두르다가 일을 망친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2) “미안한 것 보다 안전한 것이 낫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좋은 규칙입니다!

잠언은 짧은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고, 이것은 지혜 있는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장마다 많은 잠언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각 절 그 자체가 하나의 잠언입니다. 즉 13장에 25개의 절이 있다면 25개의 잠언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잠언들을 말했습니까? (왕상4:32)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솔로몬은 3,000개를 말했으나 잠언에는 915절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이 성경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솔로몬이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우므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라고 말하는 전도서 12장9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간결한 말입니다. 이것은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해진 하나의 진리입니다. 짧고 지혜로운 것들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또한 잠언은 그 가르침이 도덕적입니다. 이것은 각 잠언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잠언서 15장1절을 살펴보세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잠언서 15장8절을 살펴보세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잠언에는 한 달의 날 수만큼 장들(31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다면 딱 한 달이면 이 책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혜

성경에서의 잠언은 믿는 자의 삶을 규제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짧은 말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실제적인 지혜 즉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에 도움을 주는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면에서 전혀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어떤 것들은 실제적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란 어떤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때까지 점점 더 하찮은 것을 점점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잠언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참 된 지혜를 바르게 알려주며,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이 다루는 실제적인 것들
돈 먹는 것/자는 것/확내는 것/말하는 것/일하는 것 행복해 지는 법/친구들/부모님/게으름/많은 주제들



사람으로 묘사된 지혜

잠언의 앞부분에서 지혜는 마치 사람(여성)인 것처럼 종종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언 9장에서 볼 수 있는데, 9장을 보면 어리석고 세상적인 여자(13-18절)와 지혜라는 여자(1-5절)가 있습니다. 이 두 여자들은 모두 남자를 부르며 “나에게로 오세요, 내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3-1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잠8:1-12)

당신이 지혜라는 여자와 나란히 길을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신은 막다른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하나는 곧장 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됨). 이때 지혜는 어디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돌아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당신의 친구는 “미안하지만 그 길로 갈 수 없고 가셔도 안돼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친구와 계속 걸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녀를 떠나 혼자 걸어가야 할까?”

당신이 지혜를 친구로 간직한다면, 당신은 화평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잠3:17-1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녀를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기 원하시며,(잠4:13) 지혜를 높이고 그것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잠4:8)

우리는 신약 성경을 살펴 볼 때, 지혜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골2:2-3). 그분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발견합니다(잠8:35-36과 요일5:12 비교).

핵심 절

잠언의 핵심 구절은 1장 7절에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알고 의식함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함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와 존귀를 보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짐 -하나님을 무시함 -그들의 생각과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함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음

사람이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원한다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지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기를 거절하고 그 문을 통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 부릅니까?(잠1:7). 어리석은 사람들은 잠언 1장29절에도 묘사된 것처럼,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주 두려워하기를 택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혜를 당신의 삶의 친구로 택한 적이 있습니까?

지혜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잠언이 매일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실제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기 거절한 사람들은 잠언이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짧은 말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알기 위해 모든 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18과 전도서.솔로몬의 아가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첫 절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설명에 맞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도서 개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전1:2)는 말씀은 이 책의 요점이 되며 사람의 업적이 그 자체로 끝날 때에는 허무하고 사람을 실망시킴을 잘 보여 줍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 쾌락, 수고, 인기, 재물, 명성 등이 사람에게 지속되는 즐거움을 주지 못함을 차례로 보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임을 보여 주며, 긍정적인 결론을 냅니다(전12:13). 전도서는 특별히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현대인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책은 사람의 큰 업적과 이 땅의 소유가 결코 지속되는 행복을 주지 못함을 가르치면서, 참된 행복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도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기뻐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전3:12-13), 하나님은 우리가 이생에서 행복하고 그래서 자신이 매일 부어 주는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기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나가길 원하십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전3:2)는 말씀과 함께 모든 사건에 합당한 때가 있음을 감동적인 시로 잘 보여 주며, 우리의 삶에 균형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도서는 늙는 과정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면서(전12:1-7), 고통이 따르는 노년기가 누구에게나 닥침을 인지하고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젊은 시절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전12:1)는 권고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선포자

1절에 나오는 선포자는 킹제임스 성경에 “Preacher”로 나옵니다. 우리는 선포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다 자신을 선포자라고 부르는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선포자요, 회중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어떠한 선포자였습니까? 전도서 12장9절에서 우리는 “선포자는 지혜로우므로”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전도서 12장11절에서 “한 목자께서 주신” 지혜 즉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았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도서를 쓰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으며, 그 말씀이 올바른 것이요, 진리의 말씀됨을 알려주셨습니다(전12:10). 이 책은 주께로부터 온 지혜와 진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책을 그의 생애 말년에 썼는데, 아마 솔로몬이 죄에 빠졌던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힘들게 많은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행복해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확실히 그런 책을 쓸 자격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권력, 부, 여자, 명성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으며, 그러한 것이 인생에 진정한 의미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

이 책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 중 하나는 “헛됨”입니다. 전도서 1장2절에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니까? 이 책 전체에서 이 단어는 37번 나옵니다. 헛되다는 의미는 “비어있는 것,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 이치에 맞지도 않고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헛됩니다! 인생의 모든 활동들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헛됨! 인생의 모든 활동들(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선포자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3절에 나오는 핵심 구절 중 하나는 “해 아래”입니다. 이 구절은 책 전체에서 종종 반복됩니다(약 30번). 비슷한 구절은 전도서 1장13절 “하늘 아래에서”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해 아래서나 하늘 아래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하고 놀고 살며 죽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 중 어떤 것도 그 자체로서 의미나 만족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해 위”나 “하늘 위”로 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인생의 것들에 의미와 가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을 그 중심에서 정직하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졌을 때, 인생의 공허함과 실망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하나님의 아들이며 말라기 4장2절에서 “해”로 불리는)가 없다면, 인간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매일의 일상으로 들어갈 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먹고 이를 닦고 학교나 일터로 가고 집에 돌아와 먹고 잠을 자며 매일 매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죽어서 먼지로 되돌아갑니다(전3:20).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유익”이란 단어는 이 책의 또 다른 핵심 단어입니다.)

매일의 단조로운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심에 커다란 한 조각이 있고 그 주변으로 많은 조각들이 퍼져 있는 퍼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퍼즐 조각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른 조각들은 삶의 모든 활동들을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가운데 있는 큰 퍼즐조각이 없다면 다른 조각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퍼즐 조각이 제 자리에 놓이면 다른 모든 조각들은 갑자기 자리가 잡히고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면 인생의 모든 활동들(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살고 죽는 것)은 갑자기 의미가 통하고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거듭해서 선포자는 하나님 안에서라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손으로 부터 오는 선물처럼 여겨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전2:24; 3:12-13; 3:22; 5:18-19; 8:15; 9:7-9).

이렇게 전도서에서 나오는 복된 소식의 메시지는 일단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면, 인간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이 책의 마지막 두 절에 이르게 되면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줍니다. 유일하게 인생에 의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더 많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전12:13)

솔로몬의 결론은 매우 지혜롭고 단순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생의 모든 활동들은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차기 때문에 만족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전3:11)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계4:11)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은 자신의 창조자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창조된 이유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사랑의 노래

이 책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보통은 솔로몬이 이 노래를 썼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가”라고 합니다(아1:1). 또한 “노래 중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1:1 참조). 이것은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노래를 썼습니까?(왕상4:32) 솔로몬의 모든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를 택하여 자신의 말씀의 한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노래 중의 노래” 즉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노래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가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남자(솔로몬)와 여자(솔람미 처녀) 사이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 핵심 단어는 “사랑하는”으로 3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결혼(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관계)은 신성하고 놀랍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히13:4)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결혼이나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가 매우 드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경시하며, 많은 커플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입니다(요4:17-18 비교).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방법대로 결혼을 연습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

습니다. 결혼과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고 사랑이 충만하려면 하나님(결혼의 저자)과 그분의 말씀을 제외시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혼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하며, 많은 곳에서 문제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현 시대에는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사랑의 노래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에서 핵심 절은 6장3절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관계를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 시는도다.”

또 다른 핵심 절은 8장7절에 나옵니다.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의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그 불을 끌 수 없고 물에 빠뜨릴 수 없으며 돈 주고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에 빠졌어!”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날 그들은 사랑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을 소유하려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귀한 소유물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나는 그분의 값비싼 진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 주인,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며 벗이 되십니다.

결혼관계는 믿는 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엡5:22-33 참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요일4:19)”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19과 이사야서

구약을 통한 성경 공과를 통해 우리는 모세5경과 역사서, 시가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약에는 16권의 대언서가 있는데, 그것들은 기록한 대언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말라기는 말라기가 기록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대언서, 대언자들의 사역, 이사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대언서와 제2대언서

사람들은 보통 16권의 대언서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 제1대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로 구성된 4권입니다. 이들은 크기 면에서 더 크기 때문에 제1대언서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책들은 제2대언서들 보다 길며, 페이지도 많고 장도 더 많습니다.

▶ 제2대언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12권입니다. 이 책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제2대언서들 이라고 불리며, 모두 아주 작고 각각의 장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66 장인 반면 12개의 제2대언서는 모두 합해 67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1대언서들이 제2대언서들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까? 과연 책의 크기가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약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이고, 요한1서는 5장이기에 요한일서 보다 요한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4:4). 이런 면에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다”도 이사야의 66장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2대언서들도 성경의 다른 책들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사역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쇠퇴기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언자들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말하며,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대언서들을 펴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 주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 동안, 이후 (before, during, after)

대부분의 대언자들은 왕정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언자들은 바빌론 포로시대에 살았고, 어떤 이들은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에 살았습니다.

포로생활 이전에 기록자 (before)	포로생활 동안에 기록자 (during)	포로생활 이후에 기록자 (after)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여줌

이사야는 바빌론 포로생활 전에 살아서 기록했던 대언자 중 한 명이며, 이사야서의 첫 절은 이사야가 사는 동안 통치했던 4명의 왕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자신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신실한 대언자는 사악한 므낫세 왕 통치시대에 톱으로 목이 두 개로 잘렸다고 합니다(히11:37 참조).

●오늘날에는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불신자들은 적어도 “두 명의 이사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두 명의 저자). 그들은 이사야서의 후반부(40-66장)를 기록한 사람은 전반부(1-39장)를 기록한 사람과 달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기록한 사람은 대언자 이사야 시대에서 적어도 약 200년 이후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을 그러한 것을 말합니까?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4장28절과 45장1절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고레스는 대언자 이사야의 시대 약 200년 후인 B.C. 6세기 후반 경에 살았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 당시는 물론 자신이 죽은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날 때까지 태어나지도 않았던 왕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2,000년대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접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고레스에 대해 기록한 사람은 고레스의 시대나 훨씬 그 이후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자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려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밝히 알리실 수 있습니다(사46:10).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고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41절에 이사야서의 두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38절) 이사야서 53장의 인용(이 책의 후반부)이며, 두 번째는(40절) 이사야서 6장(이 책의 전반부)의 인용입니다. 성령님은 요한을 통해 이사야서의 기록자가 이사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축소판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성경이 총 66권(구약39권, 신약27권)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이루어졌고, 두 개의 중요한 부분(전반부 39장, 후반부27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두 번째 부분의 첫 장)은 신약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길을 곧게 만들라.”(사40:3)(마1:3)

이스라엘의 위대한 메시아

우리는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구약의 다른 어떤 곳 보다 분명하게 구원자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절은 몇 절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마1:22-23)

이사야서 9장에서 메시아가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절은 어디입니까?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며(요3:16 참조) “강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입니다(사9:6 참조). 아마 모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언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올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절마다 메시아가 우리들의 죄들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은 고전15장3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고전15:3)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의 탄생과 죽음은 어떠한 지에 대해 놀라운 대언들을 모두 기록하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사46:10)



다른 메시아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다른 구절들을 읽을 때, 메시아가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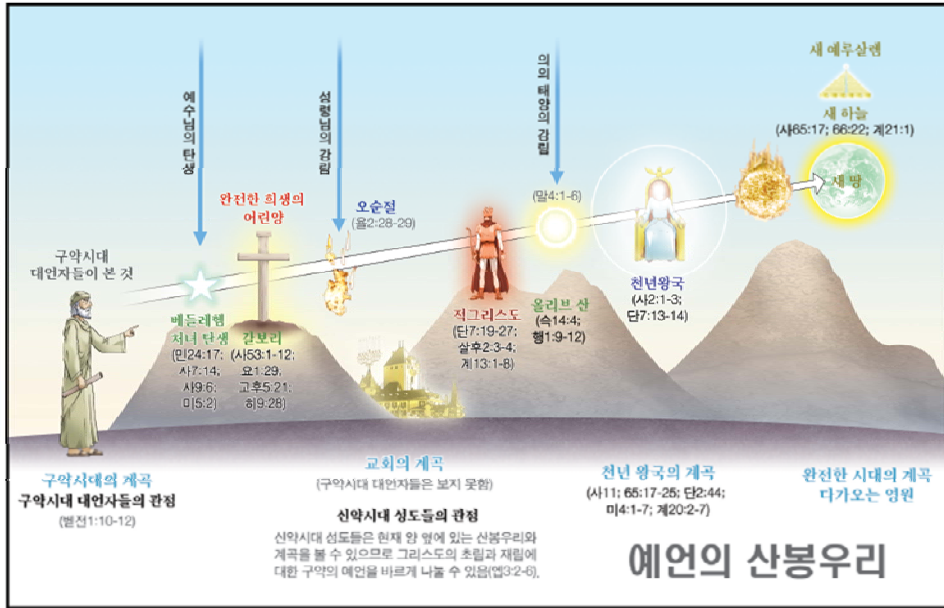
- ▶ 죽으시고 고통당하는 메시아: 사53장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배웁니다.
- ▶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같은 메시아: 사9장6-7절과 11장1-5절에서 우리는 모든 지구상에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메시아에 대해 배웁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구절들은 두 명의 다른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살았던 어떤 유대인들은 이 절들을 읽고 메시아가 한 명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33-34절에서도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두 명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메시아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우리에게 오직 메시아는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은 우리는 한 명의 메시아가 있으며, 땅에 두 번 오신다고 배웁니다(초림과 지상재림).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이며(딤후1:15),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때가 될 것입니다(계1:7).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모든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약속된 왕국에 대해 말해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피고, 이 구절들이 왕국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1-5절/이사야서 9장6-7절/ 이사야서 11장1-9절)

예언의 산봉우리



이사야에서의 복음

이사야서는 아주 분명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사야서를 사용하여 어떻게 구원받는 지를 보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은 구약은 받아들이지만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가로 안에 적정한 알파벳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문제를 풀게 되면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 이사야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다.() 2.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 3. 죄(불법)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을 분리시킨다.() 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5. 우리의 죄들은 그리스도에게 놓여 졌고 우리의 불법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다.() 6. 죽음이 그분을 이기지 못했으며 그분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하고 자신의 씨(자신이 구원하신 자신의 자녀들)를 보시기 위해 다시 일어나셨다.() 7.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하게 죄들을 사면시켜 주셨다. 우리의 죄들은 “눈과 같이 희게”될 것이다.() 8. 인간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를 찾아야 한다.() 9. 인간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이다.() 10. 구원은 “돈도 없이 대가도 없이” 거저 받는 선물이다.() 11. 구원받기 위해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12.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자만 바라보아야 한다.() 	<p>-이사야서</p> <p>A. 1:18</p> <p>B. 6:3</p> <p>C. 7:14; 9:6</p> <p>D. 45:21-22</p> <p>E. 53:1</p> <p>F. 53:4-5</p> <p>G. 53:6</p> <p>H. 53:10</p> <p>I. 55:1</p> <p>J. 55:6-7</p> <p>K. 59:2</p> <p>L. 64:6</p>
--	---

당신은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위대한 메시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제20과 예레미야서.예레미야 애가

우리는 지난 시간 대언서와 대언자들의 사역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구원의 복된 소식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메시아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이 두 책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두 권 모두 기록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죽은 지 약 60년 후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자신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대 즉 도시가 바빌론에게 멸망되기 전에 자신의 메시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다가 올 심판에 대해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그의 경고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유대의 마지막 다섯 왕들의 통치기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왕국의 마지막 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던 이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 시기에 살았던 백성들에 대해 예레미야서 1장16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경배하였은즉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50년 동안 유대와 예루살렘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에게 우호적인 청중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 내리라.”(렘1:19)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주가 그를 건져내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인기 있는 선포자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또한 아주 인기 있는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15절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그의 선포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렘20:2)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그는 귀머거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렘37:2)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렘37:15)

나중에 그는 끔찍한 감옥에 떨어졌습니다.(렘38:6 참조) 그러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했든지 그를 어디에 넣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하나님은 그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그의 선포 대상	배교의 민족(주로부터 돌아섰던 백성)
그의 메시지	다가올 심판과 운명!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 옴
그의 인기	그는 어떻게 적을 만드느지를 알고 있었음
그의 거주지	자주 감옥에 갇힘
그에게 용기가 되는 것	주께서 ----- 두려운 분으로서 그와 함께 계심(렘20:11)
그의 동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탄(렘20:9)

핵심 단어들

1. 바빌론: 이 단어는 이 책에 164번 나옵니다! 여러 번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도록 바빌론 사람들을 보내실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 예로 예레미야서 20장5절에 “또 내가 이 도시의 모든 기력과 그것의 모든 수고한 것과 그것의 모든 귀한 것을 넘겨주고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주리니 그들이 그것들을 노략하고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가리라.”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변하지 않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2. 타락한(backsliding): 이 단어는 13번 나옵니다(렘3:22; 5:6; 14:7; 8:5 등). 자신의 죄들로 인해 그 백성은 주로 부터 멀리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치유하실 수 있기에, 그들은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렘3:12,22).
3. 순종: 이 단어는 18번 나옵니다. 또 다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날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렸으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루시려는 것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렘 42:21; 3:13; 9:13; 32:23; 40:3 참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를 거절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고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날에도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저주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렘11:3 참조). 오늘날에도 순종이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서의 핵심 절 중 하나는 4장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내 눈앞에서 네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로부터 돌아서서 불순종과 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은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3절에 나오는 슬픈 단어들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40절을 비교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십니까? (마11:28; 요6:35,37)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레미야의 책은 또한 그 안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 오고 있긴 하지만 예레미야는 더 밝은 날이 또한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은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것을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31-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언젠가 놀라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렘31:33)

이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과 천년 왕국 시대에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예레미야도 또한 우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왕국을 묘사하는 구절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 23장5-8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는 바빌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정복했던 그 끔찍한 침략을 볼 때까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자신의 눈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렘39장 참조). 예레미야는 이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기뻐하며 “나는 이 사악한 백성들이 당연히 받을 것 받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울고 유대 백성들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미워했었지만, 그는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 또는 “상한 심정의 대언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렘9:1; 13:17; 14:17)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예레미야는 지금 애가라고 부르는 책을 썼습니다. “애가”라는 단어는 “슬픔과 애통으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눈물의 대언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와 백성들을 위해 애통해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가서 중의 하나이며, 알파벳순의 시와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 1장은 22개의 절들이 있는데 1절은 히브리 철자의 첫 글자로 시작하고 2절은 두 번째 철자로 시작합니

다. 애가는 “상한 마음의 노래, 슬픔의 시편, 슬픔의 심포니, 눈물의 이야기”로 불러 졌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에서 통곡의 벽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절

예레미야애가 1장8절은 핵심 절이며,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는 복된 소식과 희망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3:21). 그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그분께 반역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그의 민족을 심판하실 때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예레미야애가 3장22-23절에 나옵니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 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 대한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계셨고, 그들이 예레미야와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지만(나중에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도 거부함)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롬11:1). 그의 백성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애가를 읽을 때 예레미야와 그의 눈물 너머 울고 있는 어떤 분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한 마음의 대언자는 주의 백성들의 죄가 주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 세기 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바로 예레미야가 했던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우셨습니다(눅19:41).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비슷했습니다(요11). 예수님의 메시지는 귀머거리와 눈 먼 사람에게 선포되었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 거부를 당하셨습니다(요1:11). 백성들은 그분을 미워하였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주 그들을 함께 모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마23:37)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 속에서 살며 심판을 향해 갈 때 결코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

오늘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것과 똑 같습니다. 이 시간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받은 성도들도 삶 속에서 행하는 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잃으며, 슬픔 속에서 믿음의 선한 간증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²²⁾

22)어떤 이들은 요일1:8에 따라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의 용서를 구하면 안 되고 단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곧 기술적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요일1:8). 심지어 구원받은 바울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이다.”라는 현재형 고백을 했다(딤후1:1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교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것이다.

제21과 에스겔서

에스겔은 BC 598년경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뒤, 14년이 될 때까지 근 20년 동안 대언하였고, 처음 8년 동안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고, 말세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최후 귀환과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대언하였습니다(겔37-48장).

에스겔-죄, 심판과 미래의 영광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의 통치 동안 바빌론으로 잡혀 온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겔1:3, 왕하 24:10~16) 에스겔은 제사장이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에 잡혀 왔으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가 되었습니다.(겔1:3) 에스겔이 살았던 그발 강가는 바빌론 도시 근처에 있던 수로였으며, 에스겔은 고국에서 약 1,500km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다른 유명한 두 사람과 동시대에 살았는데, 한 사람은 왕을 섬기던 바빌론 도시에 살았던 다니엘이며, 그의 책에 언급되었습니다.(겔28장) 또한 이 두 사람과 약 1,500km 떨어져 있긴 했지만, 대언자 예레미야도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온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왕하24:14).

에스겔의 메시지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온 집”을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겔39:25 참조).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이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에스겔 2장에서 “반역하는”(rebellious) 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에스겔은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겔2:5,7)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백성은 반역하는 집이었지만,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겔2:5)

에스겔서의 필요성과 목적

1.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대언하는데 이것은 편안히 거하는 백성들에게 이 집트가 바빌론의 멍에를 끊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결국 그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을 보여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과 똑같이 죄를 보아야 합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명령들에 불순종했습니다. 바빌론 포로생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벌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 에스겔 당시 누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29절에는 그 민족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네 개의 'P'가 있습니다.

1) 거짓 대언자들(Prophets)	25, 28절
2) 제사장들(Priests: 종교지도자들)	26절
3) 왕자들(Princes: 민족의 통치자들)	27절
4) 그 땅의 백성들(People)	28절

이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했나요? (겔22:31).....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가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였으며”(겔22:28)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대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바빌론으로 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며 예루살렘 도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였으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 에스겔은 옳았으며 다른 대언자들은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산지 12년 후 그는 예루살렘 도시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멸망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겔33:21).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그 민족에게 내리신 것이 부당한 일이었습니까?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민족이 받아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겔 18:25,29; 33:17,20)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백성의 자손들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로 말하건대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겔33:17)

☛ 나에게 있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며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탓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나,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나는 틀렸으며,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해야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에스겔서는 또한 모든 인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 아담, 또는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 서든지 넘어지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좋은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며, 나쁜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나쁜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닙니다(겔18장 참조). 아들은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자신이 한 결정에 책임

을 저야 합니다. 그에 따라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잘못입니다. 나는 개인의 선택과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에스겔서는 단지 “나쁜 소식”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이국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겔서는 역사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는 그 민족에게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도시와 성전은 적에게 파괴되어 폐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에스겔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터널의 끝에서 어떤 빛이 보일 수 있었습니까, 완전히 암흑이었습니까?

☛ 유대인들의 희망

에스겔의 위대한 대언(특히 책의 뒷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더 밝은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겔39:25).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에스겔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언젠가 이 땅에 세워질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해 말했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40-48장)에서 대언자는 천년 왕국 시대에 이 땅위에 세워질 위대한 성전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빌론 사람들이 완전히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파괴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만큼 더 위대한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장래에 크기 면에서도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하는 성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비록 황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미래는 아주 밝을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은 죄를 지은 다른 민족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중반은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25-32장).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의 대언자

에스겔은 그의 책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의 대언자”라고 불렸습니다. 첫 장에서 에스겔은 주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주의 영광을 본 후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겔1:28)

에스겔 11장23절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이 그 민족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떠났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난 후 곧 성전은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 파괴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이 다시 천년 왕국시대에 성전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배웁니다(겔43:2).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는 반복적으로 보통 위의 내용으로 60번 정도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민족들에게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빌2:10-11)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스겔서는 죄에 빠져 사탄이 된 천사에 대한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28장 11-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천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악한 마귀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또한 이사야서 14장 12-15절에서 사탄의 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에스겔서 28장에 이 구절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이 죄를 짓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²³⁾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스겔서 4장과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기와를 예루살렘 도시로 가장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여 바빌론 사람들이 곧 어떻게 할지를 보여 주었습니다(겔4:1-4).
2. 그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었고, 다음에 40일 동안 오른 쪽으로 누웠습니다(겔4:4-6).
3. 그는 머리와 수염을 밀고 머리카락에 뭔가를 했습니다(5:1-5). 이러한 모든 것들은 중요한 이유에서 한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진리를 “행동으로 나타낸” 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행동으로 나타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나 “살아있는 성경”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고후3:2-3)

여러분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읽어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학교, 교회, 이웃,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냅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1:22)

23)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마귀의 일대기는 에스겔서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언급되어 있다(겔28:14).

제22과 다니엘서

다니엘-왕국들의 흥망/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어렸을 때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와 용광로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보다 다니엘서에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과 인간 다니엘

다니엘은 에스겔이 그곳으로 오기 약 8년 전에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다니엘은 아이에 불과했고(아마 10대),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빌론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기였는데, 다니엘서가 끝날 때 다니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80세 또는 그 이상).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도 이때 살아 있었으며, 우리는 에스라의 첫 부분과 학개에서도 그들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빌론이 아닌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과거에 살았던 가장 의로운 사람 노아(창6:9)와 욥(욥11) 사이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크게 사랑받는 사람”인 다니엘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배우게 됩니다(단10:11 참조).

1. 다니엘은 목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 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단1:8).

다니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방 민족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홀로 서서, 담대하게 목적을 확고히, 담대하게 알려지게 (Dare to be a Daniel, dare to stand alone, dare to have a purpose firm, dare to make it known!)”라고 자주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2.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까? (단6:10).....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않았기에, 그는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다니엘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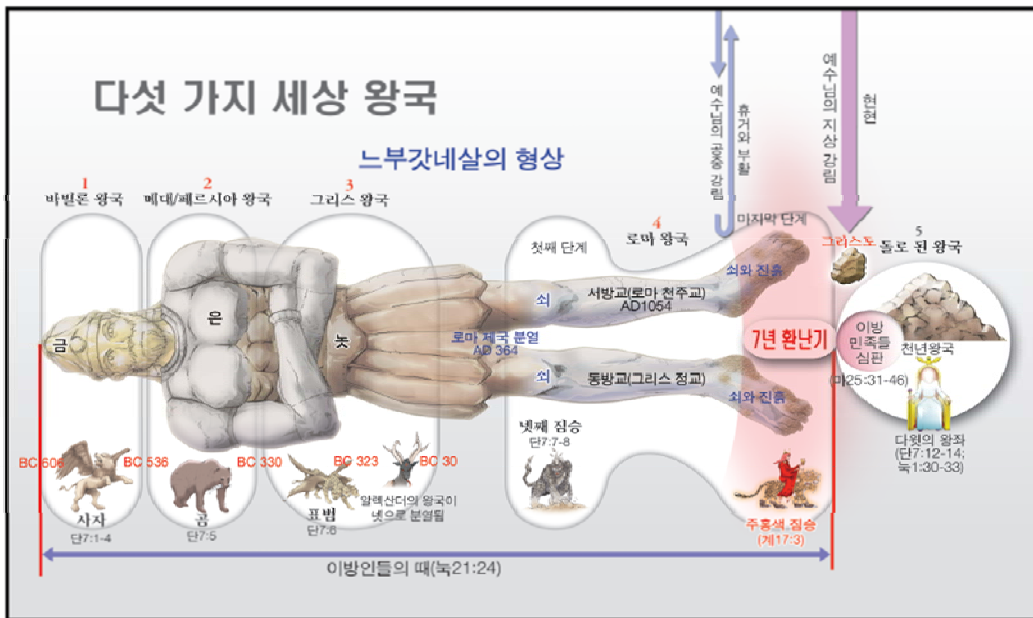
다니엘 9장2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바빌론 포로생활이 7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칠십 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것을 읽고 믿습니까?

공정에서 고귀해짐

다니엘은 왕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자기 백성)의 멸망을 보았고 바빌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멸망도 보았고(단5) 메대-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정부가 권력을 잡든지 다니엘은 항상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고(단2:48; 6:1-3), 요셉이 이집트 궁정에서 치리자의 위치에 올라 권력을 가졌던 것처럼 다니엘도 바빌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치리자의 자리에 올라 고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왕들과 왕국들에 대한 책

다니엘서는 왕들과 왕국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우리는 다가올 세상의 왕국들에 대한 두 개의 위대한 대언들을 봅니다. 다니엘 2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세상 왕국들을 각각 다른 금속들로 만들어진 크고 영화로운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꿈에 나온 이 형상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짐승(사악한 이방 세력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상 민족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실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통치아래 있는 기간을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25)라고 이야기합니다 (눅21:24). 이 기간 동안 이방인들의 세력은 지구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방인들의 때”는 바빌

24) 다니엘서 7장에는 동일한 이 네 왕국과 세상 제국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사람을 괴롭히는 짐승들로 나옵니다.

25)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찰 때까지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두셨고 그 후에 그들을 풀어놓으시고 주전 606년경에 세상의 권세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눅21:24에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곧 하나님께서 심중에 정하신 어떤 한정된 기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롬11:25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이방인들의 충만함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론 포로생활과 함께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끝이 날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으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왕국

다니엘서는 실제 다섯 개 왕국에 대해 말하며, 네 개의 이방 왕국들(바빌론, 메대²⁶-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이 있지만, 다니엘서 2장 44절과 7장 13-14절에는 다섯 번째 왕국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왕국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미래에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로 이 땅에 올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이 될 것이다(단2:44, 7:13-14).

2) 하나님께서 미래에 통치하실 것이지만 그분은 또한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니엘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아마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우리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핵심 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단4:17)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도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지배자들을 통치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합니다.(단2:21).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왕이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요19:11 참조).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매우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동일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해야 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유대를 정복했지만 유대의 하나님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바빌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단5장) 왕국들은 일어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신의 왕좌에 계십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과 매우 비슷합니다(마24장 역시).²⁷⁾ 또 다른 핵심 절은 다니엘서 2장22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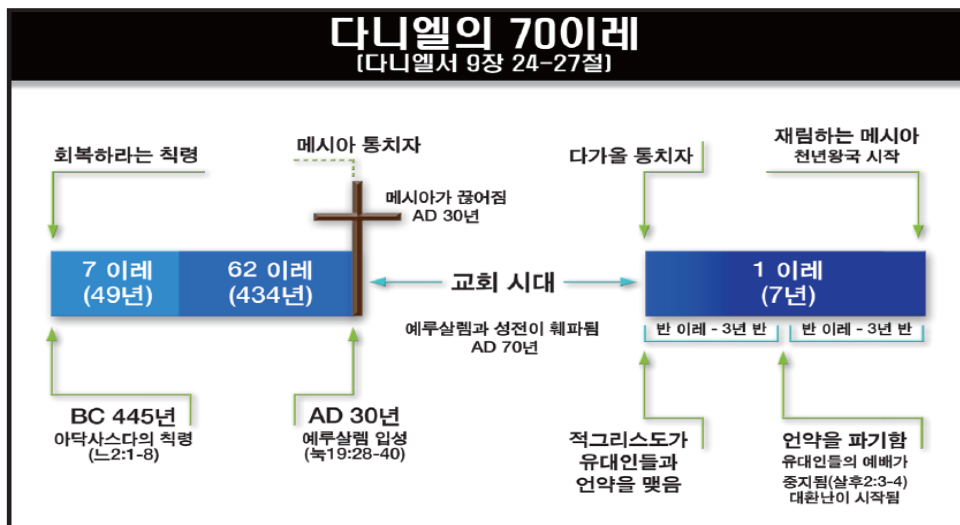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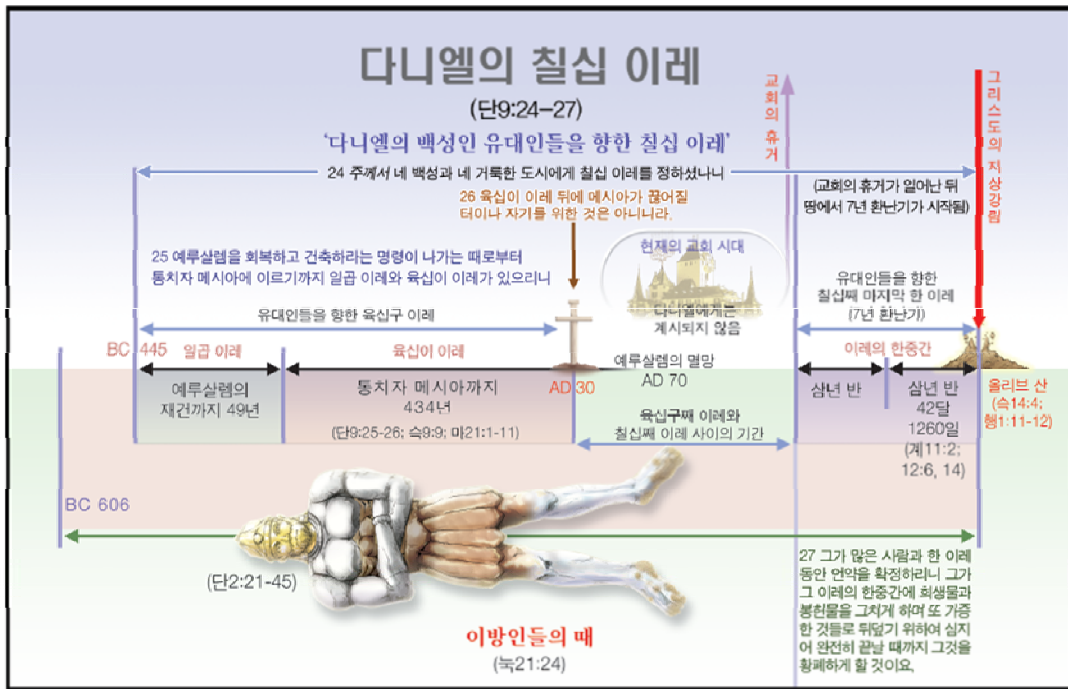
26) 야벳의 아들인 마대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으로 추정되는 나라(창10:2)로 메대는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독립 왕국 중 하나이다. 여러 세기 동안 메대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다가 주전 700년경 산헤립 시대에 반역을 일으켰고 그 뒤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서 문명을 꽃피우고 부유하게 되었다(사 13:17-18; 21:2-3). 이렇게 지내다가 이곳은 고레스 밑에서 페르시아와 하나가 되어 메대/페르시아 왕국을 형성하였다.

27) 사실 다니엘서가 없다면 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자신의 큰 예언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미래의 왕국들과 왕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계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세상 왕국의 변천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의 칠십 이레



룩 다니엘서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마24:15). 이런 이유로 다니엘서는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언서들 중 하나입니다.

제23과 호세아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여행하는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호세아서에 나타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HOSEA) 개요

- 기록자: 호세아, 기록 시기: 주전 72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0년
- 수신자: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
- 이름: 호세아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를 뜻한다. 호세아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마치 남 왕국 유다를 향해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 대언자와 비슷한 사역을 수행함.
- 주제: 이스라엘의 배교와 회복
- 목적: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권고를 가르쳐 주는 것

-내용: 호세아서에는 사악한 정부(情夫)를 따르기 위해 신실한 남편에게서 등을 돌린 아내를 통해 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잘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호세아 자신의 체험에서 나왔다. 호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간적인 면에서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고귀한 소망을 지닌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그녀의 음란한 품성을 알게 되며 그래서 곧이어 별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호세아의 사랑은 지속되었고 결국 그는 그녀와 다시 결합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과 유사하다. 주께 신실할 것을 맹세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릴 때까지 바알 신과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약속과 함께 마지막 때에 영적인 씨가 행복을 누릴 것을 보여 주셨다. 호세아서는 14장, 197절, 5,175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3장(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핵심 절: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을 파멸시켰거니와 네 도움이 내게 있느니라.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네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13:9-10), 핵심 단어: 돌아오라(15회), 핵심 구: “마지막 날들”(3:5)

-호세아서의 그리스도: 다윗(3:5), 영적 교훈: “하나님께서로 돌아가라.”



호세아-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호세아는 유다(남 왕국)의 왕들인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²⁸⁾ 시대에 통치 동안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호1:1).

호세아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이사야1:1에 언급된 왕들 참조), 이사야의 사역은 남 유다 유다이며, 호세아의 사역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8) 호세아 1장1절에 언급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II임.

호세아의 책에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36번 나오는데(호세아 5장 참조), 이 이름은 북 왕국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듯 호세아의 메시지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보려면 그의 삶을 보라!

호세아는 자신의 삶으로 그의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길 원하셨으며, 이것을 위해 그분은 호세아의 결혼을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를 배신하고 다른 연인들을 따라갔습니다(호1: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대언자 호세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결혼의 비극을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이름은 다블라임의 딸 고멜(호1:3)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호세아를 떠났는데, 물론 이 때문에 호세아는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이 저지른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호세아 3장에서 우리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 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호3:3).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고멜과 같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고멜이 호세아를 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이 아주 중요한 것의 표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호세아의 개인적인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호세아는 주 하나님을 나타내며, 고멜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주의 아내로써 존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존귀를 그녀에게 행하셨으며, 그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간음을 행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행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분이신 진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 다시 데려오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왕하14:23-24) 그들은 주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세 가지 큰 진리들

1)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행음할 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행음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정한 아내를 가졌던 호세아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그의 마음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가 경험한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의 표상임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릴 때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왕국에 대해 상한 마음의 대언자였던 것처럼, 호세아도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상한 마음의 대언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호세아도 방탕한 아내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거나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께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행음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약4:4 참조). “영적인 간음”(약4:4)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첫사랑”(계2:4)을 떠나 세상이나 쾌락이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3)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행음하는 백성들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의 절들을 살펴보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14-15절, 호세아6장1-3절, 호세아 11장1-4절, 호세아 14장4-8절.)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다시 구령하시려고 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죄를 짓고 행음했다 하더라도 호세아는 그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호3:1-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하십니다. 호세아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15회). 또한 핵심 절은 호세아 14장1절입니다. 죄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행음하는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누가 움직여야 합니까?

당신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과 가깝습니까?

당신이 부둣가 바로 옆에 있는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두에 매어 있지 않음). 당신이 경치를 즐기면서 앉아 있을 때 그 배는 조금씩 표류하기 시작했고, 한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은 부둣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누가 움직였을까요? 당신입니까, 그 부두입니까? 만일 당신이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가 움직였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야고보서 4장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한복음 3장16절에 나오는 구원의 약속 같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절대 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아니 무궁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16절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호14:9)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주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도는 올바른 주의 길들을 택하며, 그 길들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최고의 길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지식(Knowledge)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에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호4:6~9)

지식이란 경험과 사고를 통해 얻는 삶의 진리나 사실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시46:10; 요8:31-32). 이러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이성으로 얻을 수 없으며(욥11:7; 롬11:33)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시19; 롬1:19-20) 섭리와(신6:20-25; 단2:21)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시119; 계1:1-3). 사람의 정신적 지식은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종종 교만을 만들어 내고(고전8:1; 13:2), 사람의 윤리적인 지식은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잠1:7; 빌3:11-12; 요일4:6). 그러나 참으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지식이며, 특히 잠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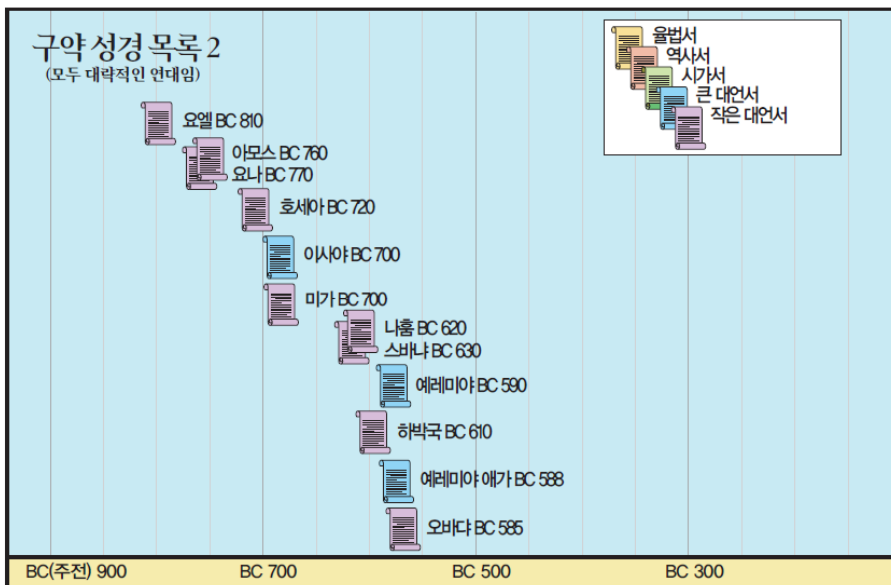
바울과 베드로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골1:10)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후3:18)



구약 성경목록2



제24과

요엘.아모스.오바다

요엘(JOEL)은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하나로 그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브두엘의 아들로 유다 왕국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의 경배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욘1:1; 1:14; 2:1, 15, 32). 그는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살았거나, 웃시야의 통치 기간에 대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엘서 개요

-기록자: 요엘, 기록 시기: 주전 81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남 왕국 유다 백성
 -이름: 요엘은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다'를 뜻한다. 참된 부흥이 회개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았던 요엘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쳤다. 요엘은 이 짧은 글에서 모세오경을 무려 25회나 언급하며 특별히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관련 있는 것을 대언했다.
 -주제: 주의 날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복, 목적: 진정한 복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유다 땅에는 유례없이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이것으로 인해 백성이 궁핍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심판은 유다의 죄들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요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된 적이 있는 이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주의 날에 군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올 것을 기술했다. 요엘은 또한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것을 예언했다(마 25:31-46 참조). 요엘서는 3장, 73절, 2,034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주의 날), 핵심 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2:12), 핵심 단어: 회개하라

-핵심 구: “주의 날”

-요엘서의 그리스도: 주 너희의 하나님(2:23), 영적 교훈: “심판의 경고를 울려라.”

메뚜기 심판

요엘의 대언은 팔레스타인 땅에 내렸던 끔찍한 메뚜기 재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욘1:4). 인터넷 뉴스를 보더라도 메뚜기가 일으킬 수 있는 파괴는 거의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것들은 모든 곡식과 푸른 채소를 전부 쓸어버립니다. 그것들은 15분 안에 나무에서 잎들을 완전히 벗겨 버릴 수 있으며, 과거 1889년에는 홍해를 건넌던 사막 메뚜기 떼가 5,000km2를 덮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메뚜기 떼는 태양을 덮을 정도로 짝짝한 검은 구름과 같으며 셀 수 없는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메뚜기들을 자기 백성의 죄들로 인한 심판의 한 형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자신의 백성이 뜻을 돌이키기를(욘2:12-14) 원하십니다.



훨씬 더 큰 심판

하나님께서서는 미래에 올 더 큰 심판을 알리시기 위해, 이 메뚜기 심판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엘은 이 미래의 심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요엘의 핵심 구절은 “주의 날”입니다. 1장 어디에서 이 구절을 봅니까? 이 구절을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²⁹⁾ 3장은 어떤가요? 요엘서가 이 미래의 심판의 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다음에서 “주의 날”에 대한 설명과 절을 맞추어 보세요.(절은 한 번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1. ----- 이와 같은 때가 결코 없었다.
2. ----- 크고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3. ----- 그 큰 날이 오기 전에 태양이 어둠으로 변할 것이다.
4. -----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5. -----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의 때가 될 것이다.
6. -----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 될 것이다.
7. ----- 땅이 진동할 때가 될 것이다.
8. ----- 주가 직접 “시온에서 부르짖을” 것이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믿음의 선택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할 때 마다 즉각적으로 사람을 심판(순간에 즉사시키거나 번갯불로 치는 것)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정사에 개입하시고 이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실 미래의 어떤 날이 오고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에 대한 요엘의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욘2:12,13)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각 사람들에게 요엘서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욘2:14; 2:34)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나쁜 소식)과 하나님의 구출(좋은 소식)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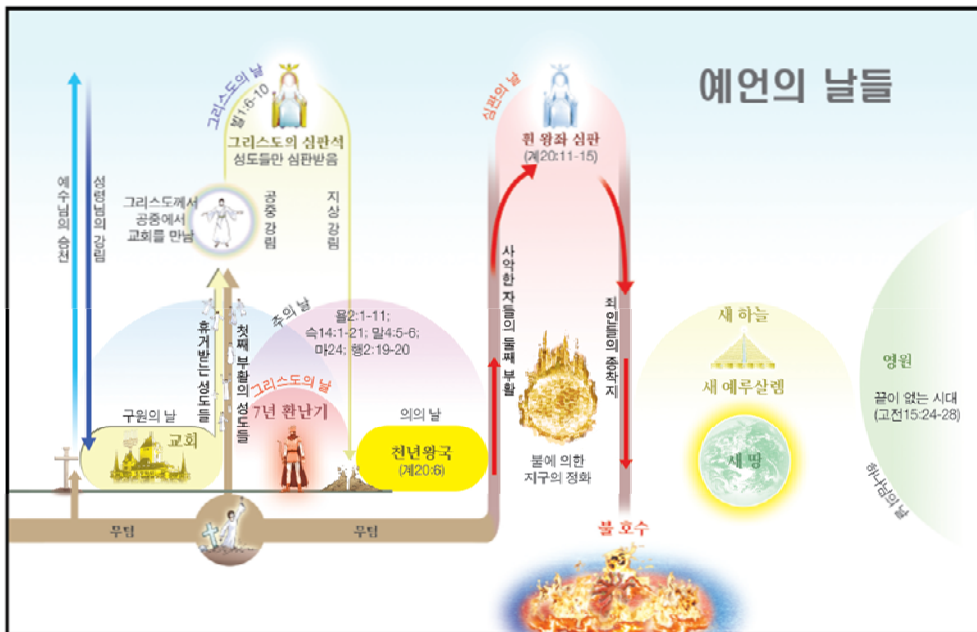


주의 날

이 개념은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서는 날이며 이 날부터는 다시 그분의 왕국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사2:12; 13:6, 9; 34:8; 겔13:5; 30:3; 욘1:15; 2:11; 암5:18; 습1:14; 슝14:1). 이 날은 또한 징벌하는 날(사 10:3)이고 주님의 진노의 날이며(겔7:19) 주님의 큰 날로서(습1:14), 구약에서 어둡고 무섭고

29)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욘2:28-32와 행2:17-21을 인용하며 방언과 기적, 이적 등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요엘서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과 상관 없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부여되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여 주며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바랐다(행3:19-26).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은 이로부터 근 10여 년이 지난 뒤였다.

두려운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날로 묘사되곤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오는 날을 뜻하며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날을 가리킵니다.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아버지께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요5:27; 비교 마24:27, 30; 눅12:8) 신약성경은 밝은 그림과 함께 어두운 배경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 날이 여전히 진노의 날이요(롬2:5-6), 큰 날이며(유6; 계6:17), 하나님의 날이고(벧후3:12), 심판의 날(마10:15; 롬2:16; 벧후3:7)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이 날은 단순히 ‘그 날’(that day 혹은 the day)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은 마치 이 날만이 역사에서 계수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날임을 암시하는 것이며(마7:22; 살전5:4; 딤후4:8; 고전3:13), 이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서부터 시작하여 7년 환난기와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긴 역사의 시간이며,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뒤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살전4:13-17; 계20:1-5). 이 날에 그분께서 자신의 소유물에게 오시므로(마16:27) 이 날은 우리 주 예수의 날이고(고전1:8; 5:5)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며(빌1:6, 10),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특히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나타나는 이 날에 대한 개념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이 설립되는 날이며, 그래서 이 날 이후로는 더 이상 온 우주에 죄와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하늘들과 땅은 불로 정화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것들을 대체합니다(사65:17-19; 66:22; 살후2:2; 벧후3:13; 계21:1).



아모스-하나님의 의로우심

대언자 아모스는 드고아의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사람(암1:1)이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서 약 12마일, 베들레헴 남쪽에서 약 6마일 정도에 위치해 있는 도시나 마을이었는데, 아모스는 남 왕국 유다에서 살았던 남루한 목동이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백성들이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방탕함과 사치와 불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송

아지 송배와 바알 송배가 혼합되어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가 되었는데, 제사장들은 수치스런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송아지 송배의 근원인 뵤엘로 가서 왕과 백성들에게 부정과 탐욕과 술 취함과 간음과 학대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대언자이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델의 사람들은 아모스의 사역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니다! (암7:10-13) 한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다시는 뵤엘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약속을 주면서 경건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

우리는 이미 호세아가 아모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 왕국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둘 다 하나님을 버렸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모스는 강하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말했으며, 호세아는 그들의 죄에 대해 말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말했으며 아모스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모스의 핵심 절은 아모스 3장2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런즉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너희를 벌하리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축소시킬 수가 없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암4:12)

그러나 아모스의 시대에 북 왕국은 어떠했습니까? 왕좌에 앉은 여로보암 II세는 사악한 왕이였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통치하였고,(왕하14:23) 이 기간 동안에 북 왕국의 사람들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와 사치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걱정할 큰 전쟁들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놀랍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돌아서서 죄와 우상숭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놀랍고 잘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모스가 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끔찍하며 고통과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황량하나 미래는 밝다.

가축치는 자 아모스는 그저 파멸의 대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책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암9:11-15).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며(11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최고가 될 것이며(12절) 그 땅은 비옥하게 되고(13절) 도시들이 재건될 것이며(14절) 그 민족은 자신의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15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들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특권들을 남용하게 되면 많은 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바다-에돔의 멸망

오바다³⁰⁾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총23절) 성경은 대언자 오바다에 대해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의 종”을 의미하며, 주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작은 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의 종 오바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바다에 대해 생각할 때는 항상 에돔이라는 한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은 한 민족입니다. 이 백성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었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30절에서 우리는 에서가 에돔(불다)이라고 불렸음을 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창세기 25장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죽을 먹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창25:29; 히12:16).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세기가 지나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적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서의 후손들도 에서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에돔 민족의 가장 큰 죄는 교만 죄였습니다.



에돔

에돔의 수도는 셸라(나중에 페트라)이며, 사해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곳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도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주 협소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소한 입구와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소수의 에돔의 군사들만이 대적들과 맞서서 도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완전하게 안전하며, 다른 어떤 적이 그들을 정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절벽 도시”는 바위틈에 거했으며(욥1:3) 어느 누구라도 그들을 쳐들어오거나 끌어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페트라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 절벽도시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에돔 사람은 한명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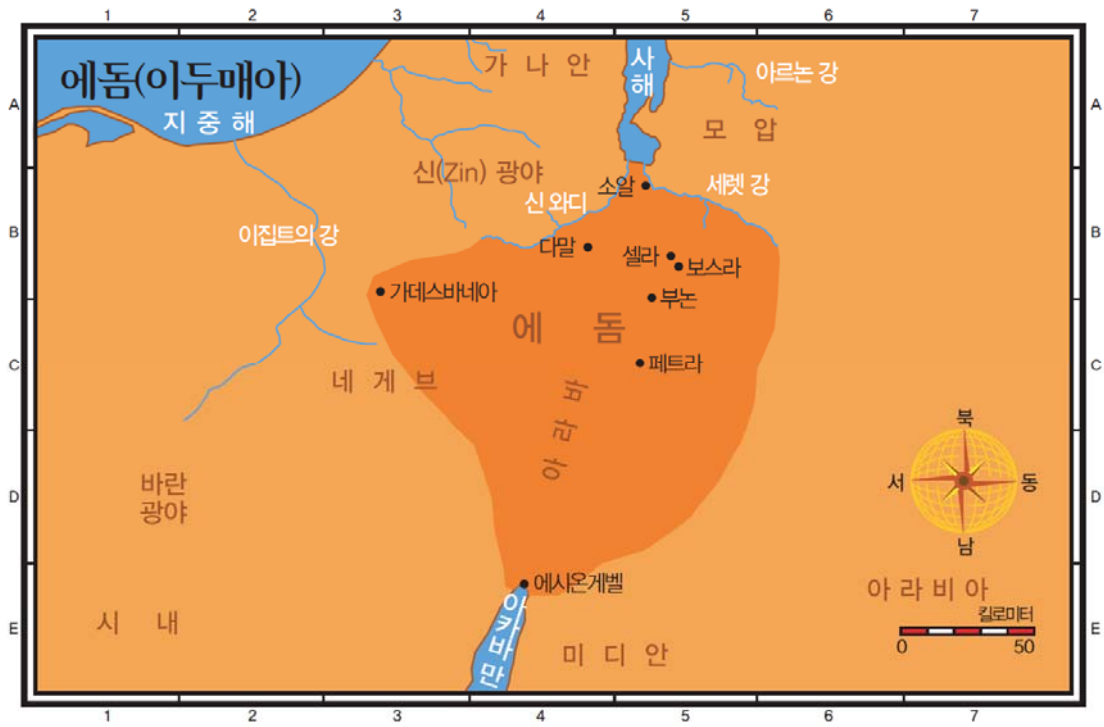
“내가 네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네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돌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욥4)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10-14절). 이 절들은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며 잔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창12:3)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바다는 믿는 자들에게 교만의 무서운 죄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들이 잘 진행된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주의 눈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전10:12)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배우시다! 육체에서 나온 것은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30)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들은 오바다처럼 에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도시가 함락될 때에 그들을 붙잡히여 가지 않고 모욕한 것으로 인해 에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대언하였고 이 같은 대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 5년 내에 이루어졌다.

에돔(이두매아)



구약성경 목록3

